

굵은 글씨는 바꾼 말
보통 글씨는 함께 쓰는 말
이탤릭체는 쓰지 않는 말
→는 바른 글과 바꾼 말 앞에

가그리스도 → 그리스도의 적

가르침 - 교도권 참조

가상칠언(架上七言) → (십자가) 일곱 말씀

가족계획 → 자연 가족계획

가톨릭(Ecclesia Catholica)

‘천주교’와 병행하여 사용한다.

가현론 → 가현설

가현설(docetismus)

어떤 주장이나 학설 또는 이론에 이름을 붙일 때에, 정통 교리가 아니면 “—설”이라 하고, 정통 이론이면 “—론”이라 한다.

그리스도 가현설은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육신의 실재를 부정하는 이단설이다.

각혼(anima animalium)

지금까지 써 오던 대로 ‘각혼’이라 한다.

간구 → 기도

간린 → 인색

간추림(compendium : 교리서, *44항 위 제목, 각 단락 끝)

* 이 자료에서 “교리서”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번역 시안을 가리킨다.

“compendium(요약)”을 쉬운 우리말로 ‘간추림’이라 한다.

감목 → 주교; 교계 제도의 명칭 참조

감사기도 (prex eucharistica)

미사 통상문 27항. 성찬기도를 “감사기도”로 바꾼다.

감실(tabernaculum)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강론(homilia)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praedicatio”는 “복음 선포”라 하고,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homilia”는 “강론”이라고 하되,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미로 “설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강론대(ambo, pulpitum)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강론학(homiletica)

강론과 설교를 구분하더라도, “homiletica”는 “강론학”과 “설교학”이라는 말을 함께 쓴다.

강복(benedictio)

“축복”이라는 말을 “하느님께 복을 비는 것(祝福)”과 “하느님께서 내려 주시는 복(降福)”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함께 사용해 왔으나, “축복”과 “강복”을 구분하여 “하느님께 복을 비는 것”만을 “축복”이라 하고 “하느님께서 내려 주시는 복”을 “강복”이라 한다. 따라서 사제는 “축복”을 하고, 하느님께서 “강복하신다(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여야 한다.

강생(incarnatio)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가리키는 용어는 “강생”이라 하고 “육화”라는 말은 되도록 쓰지 않는다. 일반적인 의미의 “incarnatio”는 “체현”, “구체화”와 같은 말을 쓴다.

강연 → 연설

개두포(amictus)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개별 공의회(concilium particulare) - 공의회 참조

개별 심판(iudicium particulare)

“사(私)”와 “공(公)”이라는 표현을 잘못 알아들을 수 있으므로, “iudicium particulare”는 “사심판”이라는 말 대신에 “개별 심판”이라 한다.

개선 교회 → 승리 교회(ecclesia triumphalis)

개신교(Protestantismus)

“가톨릭”과 대비하여 갈라져 나간 그리스도교 형제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되, 그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한 때에는 “개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구교” 또는 “신교”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개회식 → 시작 예식; 미사 통상문 1항

거듭 남 → 새로 남

거양 성체(elevatio) → 성체 거양(들어올림)

거주 미상자

본당 사목과 공식 통계 등에서 사용하는 “행방 불명자”라는 용어는 법률상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불명”이라는 말도 부정적인 인상을 주므로, “거주 미상자”라 한다.

거주 불명자 → 거주 미상자

거짓 그리스도(antichristus)

“가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반그리스도” 등은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적” 또는 “거짓 그리스도”라 한다.

게놈 → 유전체(genome)

견진성사(sacramentum confirmationis)

일곱 성사의 하나.

경당(sacellum, oratorium)

“sacellum”, “bratorium”도 일반적으로 다 “성당”이라 하고, “성당(ecclesia)”과 법적 구분이 필요할 때에만 “경당”이라 한다.

경덕 → 경신덕

경리, 경리 담당 → 재정 담당

경문 → 기도

경신덕(virtus religiosa)

“virtus religiosa”는 “경신덕(敬神德)”이라 한다.

경외(timor)

두려워함. 성령 칠은의 하나.

경축 이동(celebratio externa)

사목적 필요에 따라 정해진 축일을 주일 등 다른 날로 옮겨 지내는 것을 가리킨다.

“celebratio externa”를 “이동 축일, 축일 이동(celebratio mobilis, translatio festi)”과 짝을 이루는 말로 “경축 이동”이라 한다.

고백성사 → 고해성사

고별기도(ultima commendatio et valedictio)

“사도예절(敎禱禮節 : absolutio super tumbam)”이라는 말이 흔히 장례 미사를 거행하지 않고 하는 장례식을 가리키는 데 쓰이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사도예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 대신에 장례미사 끝의 “고별식(ultima commendatio et valedictio)”을 “고별기도”라 한다. 고별식은 장례 미사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뜻을 지닌 예식이기 때문이다.

고별식 - 고별기도 참조

고성소 → 저승

고유 성인 기도(communicantes) - 미사 통상문 83-87항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Memoria Beatae Mariae Virginis Perdolentis)

“통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고통의 성모 마리아”라 한다.

고해 사제(confessor, confessarius)

“confessor, confessarius”는 “고해 사제”라 한다.

고해성사(sacramentum poenitentiae)

본래 “고해성사”라 해 오던 말을 1967년에 고백성사로 바꾸었으나, “고해”라는 말이 이 성사의 본 뜻에 더 맞다고 보아, 이를 다시 “고해성사”로 바꾼다.

* 회개의 성사, 참회의 성사, 고백의 성사, 용서의 성사, 화해의 성사(conversionis sacramentum, poenitentiae s., confessionis s., indulgentiae s., reconciliationis s. : 교리서, 1423-4항)

일곱 성사의 하나를 가리킬 때에는 반드시 “고해성사”라 하지만, 고해성사의 특성과 여

러 측면들을 설명하는 말은 ‘회개의 성사, 참회의 성사, 고백의 성사, 용서의 성사, 화해의 성사’ 등으로 구분하여 쓴다.

고행 - 수덕 참조

공경 (pietas)

받들. 성령 칠은의 하나.

공고(banna)

‘banna’는 ‘공고’, ‘공시’라는 말을 함께 쓴다.

공동 미사 → 공동 집전 미사

공동 사죄 → 일괄 사죄(absolutio generalis)

공동 주교좌 성당(aedes concathedralis, co-cathedral)

‘aedes concathedralis’는 ‘공동 주교좌 성당’이라 한다.

공동 집전 미사(missa concelebrata)

‘missa concelebrata’는 ‘공동 집전 미사’라 하고, 이를 ‘공동 미사’, ‘합동 미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공물 → 제사 빵

공변되다 → 보편되다

공변되다 → 보편되다

공복재

영성체 전에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식음을 삼가야 하는 것(교회법 제919조)을 가리키는 말로 ‘공복재(空腹齋)’와 ‘공심재(空心齋)’를 둘 다 쓴다.

공석(sedes vacans)

‘sedes vacans’는 ‘공석(空席)’이라 한다.

공소(statio secundaria)

‘statio secundaria’는 써 오던 대로 ‘공소’라 한다.

공심재 - 공복재 참조

공심판 → 최후 심판(ultimum iudicium) 참조

공의회(concilium)

“concilium”은 “공의회”, “synodus”는 교회법전의 번역에 따라 “대의원 회의”라 한다. 다만, 교회사에서 “synodus”를 지칭할 때 “교회 회의” 또는 단순히 “회의”라고 한다.

concilium : 공의회

concilium oecumenicum 세계 공의회

concilium particulare 지역(개별) 공의회

concilium plenarium 전국(전체) 공의회

concilium provinciale 관구 공의회

synodus : 대의원 회의

synodus episcoporum 주교 대의원 회의

synodus dioecesana 교구 대의원 회의

공지(notificatio)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공통 사제직 → 보편 사제직

공현 → 주님 공현

과월절

“과월절(파스카)”이라는 말이 어렵다고 보아, 쉬운 우리말인 “넘이절”로 바꾸어 써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여겨, “과월절”이라는 용어와 함께 “넘이절”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가리킬 때에는 “파스카”를 그대로 쓰고, “유월절”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관구 공의회(concilium provinciale) - 공의회 참조

관상(contemplatio)

“contemplatio”와 관련하여, “명상”은 세속적인 의미가 강한 용어이므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잘 사용해 왔을 뿐 아니라 좀더 정확한 뜻을 지닌 “관상(觀想)”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meditatio” 또한 “묵상”이라는 용어를 계속 쓴다.

관수 세례 → 주수 세례

교계 제도의 명칭

archiepiscopus 대주교

episcopus 주교

coadiutor episcopus 부교구장 주교

episcopus auxiliaris 보좌 주교

cardinalis 추기경

monsignor 몬시뇰

presbyter, pater 신부

sacerdos 사제(주교 포함)

consilium presbyterale 사제 평의회

consilium pastorale 사목 평의회

presbyterium 사제단(주교 포함)

(‘presbyter’는 ‘신부’라 하되, 법률상 부득이 ‘신부(pater)’라는 경칭과 구분하여야 할 때에는 ‘탁덕’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교구 대의원 회의(synodus dioecesis) - 대의원 회의 참조

교구장 주교(episcopus dioecesis)

“교구장”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이제까지 써 오던 대로 “교구장 주교”라 한다.

교난 - 박해 참조

교단 - 교파 참조

교도권(magisterium, munus docendi)

“magisterium”은 교황을 비롯한 주교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나 가르치는 권한을 가리키는 말로 “교도권”이라고 옮겨 써 왔는데, “교도권”이 가르침 그 자체보다는 권위나 권력을 드러내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가르침, 교도직, 교도 직무, 교도 임무” 등의 대안을 모색하였으나, 지금까지 써 오던 대로 계속 “교도권”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의) 가르침”이라 한다.

교도소 사목 → 교정 사목

교도 임무 - 교도권 참조

교도직 - 교도권 참조

교령(decretum)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교류 회원(correspondent member)

교황청 기구 등의 correspondent member는 “교류 회원”이라 한다.

교리학교 - 주일학교 참조

교만(superbia)

칠죄종의 하나. “교오”를 “교만”으로 바꾼다.

교무금(denarius cultus)

“교무금”이라는 말을 신자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교회비, 교회 유지비, 교회 임무 유지비” 등 여러 가지 말을 그 대안으로 모색하였으나, “교무금”이라는 말을 계속 쓰면서 그 뜻을 제대로 설명해 주도록 한다.

교서(litterae)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교송 → 따름노래

교역 (ministerium)

교회의 직무 관련 용어들을 논의하고, 일반적인 뜻으로 쓰이는 “ministerium”은 “봉사”라고 하되, 성직자가 하는 “ministerium”을 구분하여 말하고자 할 때에는 “교역(따라서 minister는 교역자, clericus는 성직자)”이라 하고, “officium”은 “직무”, “munus”는 “임무”라는 말로 써 나가지만, 공식 용어로 확정하는 것은 미룬다.

교오 → 교만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missa cum populo)

“missa cum populo”는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라 하고, 이를 “회중 미사”라고 하지는 않는다.

교정사목(矯正司牧)

구치소, 소년원,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 수감된 사람들에 대한 사목을 “교도소 사목”이라는 말 대신에 “교정사목(矯正司牧)”이라 한다.

교종(敎宗) → 교황

교중 미사(missa pro populo)

“missa pro populo”는 “교중 미사”라고 한다. 또한 “missa cum populo”는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라 하고, 이를 “회중 미사”라고 하지는 않는다.

교파(communitas ecclesiastica, denominatio)

“communitas ecclesiastica, denominatio”는 “교파”라 한다.

교황(敎皇, summus pontifex)

“교황”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과거 한국 교회의 모든 전례서에서 “교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왔고 일제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교황”이라는 말이 생겨났으므로 신앙의 봉사자가 아닌 봉건 군주적인 이미지를 지닌 “교황” 대신에 “교종”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이는 실제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판단하여, “교황”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한다. 한국 교회에서는 처음에 “교화황”(敎化皇)이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그 후 “교황”과 “교종”을 혼용해 오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교황”으로 통일해 쓰고 있다. ‘종’(宗) 또한 황제들의 이름에 붙이는 군주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고대의 어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경우 중국 삼황 오제 시대의 황인(皇人)은 전제 군주가 아니라 사람들이 선출한 지도자이므로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황”이라는 말이 틀리거나 나쁜 이미지를 지닌 용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물론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이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

교황 강복 → 교황 축복

교황관 → 교황 삼총관

교황 교서(Litterae apostolicae)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교황국 → 교황령

교황 국가 → 교황령

교황 권고(adhortatio apostolica)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교황권 지상주의 → 교황 지상주의

교황령(敎皇令 : constitutio apostolica)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교황령(patrimonium papale)

“교황령(敎皇領)” 또는 “교황 세습령”이라 한다. “patrimonium papale”를 하나의 국가 형태로 볼 수도 있지만 그 기원과 역사적 변천을 고려하여 “교황령(敎皇領)” 또는 “교황 세습령”이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황 삼층관(tiara)

“tiara”는 “교황 삼층관”이라 한다.

교황 서한(Litterae apostolicae) - 교황, 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교황 선출 방법

교황 선출 방법에 관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쓴다.

per acclamationem seu inspirationem

(quasi ex inspiratione) 전원 일치 호명 선출

per compromissum 대표 위임 선출

per scrutinium 비밀 투표 선출

교황 주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가까운 주일

교황 지상주의(ultramontanismus)

“ultramontanismus”는 “교황 지상주의”라 한다.

교황청(curia romana)

국제사회에서 “사도좌”의 속칭으로 “성좌”라는 말을 써 오던 관례를 존중하되, “성청”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curia romana”는 “교황청”이라 한다.

교황청 순시관 → 교황청(사도좌) 순시자

교황청 순시자(apostolic visitor)

“apostolic visitor”는 “교황청(사도좌) 순시자”라 한다.

교황청 기구 명칭

교황 축복(apostolica benedictio)

“축복”과 “강복”의 구분에 따라, “교황 강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교황 축복”이라 한다.

교황 축복장

“축복”과 “강복”의 구분에 따라, 교황 “강복장”을 “축복장”이라 한다.

교황 헌금 → 베드로 성금

교황 헌장 → 헌장(constitutio)

교회비 - 교무금 참조

교회 유지비 - 교무금 참조

교회 음악(musica ecclesialis)

“성음악” 대신에 “교회 음악”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되, 사안에 따라 “성음악”, “전례 음악”, “종교 음악”이라는 말을 쓴다.

교회 임무 유지비 - 교무금 참조

교회 회의(synodus) - 대의원 회의 참조

구교 → 가톨릭, 천주교

구교우

“가톨릭”과 대비하여 갈라져 나간 그리스도교 형제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되, 그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한 때에는 “개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구교” 또는 “신교”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다만, “구교우” 또는 “구교우 집안”이라는 말은 여러 대째 내려오는 가톨릭 교우나 그 집안을 일컬어 쓴다.

구교우 집안

여러 대째 내려오는 가톨릭 교우나 그 집안을 일컬어 쓴다.

구마(exorcismus)

“exorcismus”는 “구마”, “악령 추방”이라는 말을 함께 쓴다.

구세주(Salvator)

“구원자, 구속주, 구세주”를 함께 쓴다.

구속(redemptio)

“구원, 구속, 속량”을 함께 쓴다. “죄를 기워 갚는다”는 뜻으로 십자가의 구속 희생을 가리키는 용어들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사용한다.

expiatio, propitiatio 속죄(성전 개념)

satisfactio, - substitutiva 보상 또는 보속, 대리 보상 또는 대속(법정 개념)

redemptio 대속, 대속물, 구속, 속량(시장 개념)

reconciliatio 화해(가정 개념)

구속주(Redemptor)

“구원자, 구속주, 구세주”를 함께 쓴다.

구원(salvatio)

“구원, 구속, 속량”을 함께 쓴다.

구원자(Redemptor, Salvator)

“Redemptor”와 “Salvator”를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모두 “구원자”라고 한다.

구체화 - 강생 참조

군난 - 박해 참조

군인 주일

10월 첫 주일

굳셈(fortitudo)

용기. 성령 칠은의 하나.

권고(adhortatio)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궐위 → 공석

규수 → 신부

규율 수도자(canicus regularis : 교회법, 제613조 1항)

“의전 사제 수도자”를 “규율 수도자”로 고친다.

그레고리안 성가 → 그레고리오 성가

그레고리오 성가

언어마다 다르게 변화하는 형용사를 영어식으로 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어법에도 맞지 않으므로, ‘바티칸’처럼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용사 대신에 명사(고유명사)를 표기한다. 예컨대, 그레고리안 성가는 “그레고리오 성가”로, 라테란 대성전은 “라테라노 대성전”으로 표기한다.

그리스도교(Christianismus)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의 한자 음역을 줄여쓴 말이므로, 비록 프로테스탄트 교파를 지칭할 때라도 이를 피하고, “그리스도교”라는 용어를 쓴다. “가톨릭”과 대비하여 갈라져 나간 그리스도교 형제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되, 그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한 때에는 “개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구교” 또는 “신교”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다만, “구교우” 또는 “구교우 집안”이라는 말은 여러 대째 내려오는 가톨릭 교우나 그 집안을 일컬어 쓴다.

그리스도 양자설(adoptianismus)

“adoptianismus”는 “그리스도 양자설”, “그리스도 입양설”이라는 말을 함께 쓴다.

그리스도 입양설 - 그리스도 양자설 참조

그리스도의 적(antichristus) - 거짓 그리스도 참조

금식 - 금식제 참조; 미사 통상문 37항

금식제(ieiunium)

단식, 절식 등은 일반적인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어, 참회 고행의 한 형태인 “대소제”라는 말에서 “ieiunium”은 “금식제”로, “abstinentia”는 “금육제”로 바꾸기로 한 기존의 결정(1967년)을 재확인한다.

금육 - 수덕 참조

금육제(abstinentia) - 금식제 참조

긍정신학(kataphatismus)

부정의 방법(否定 方法 : via negativa)으로 전개하는 신학을 “부정신학(apophatismus)”이라 하고, 이에 대비되는(초절의 방법, 인과의 방법 등으로 전개하는) 신학을 “긍정신학(kataphatismus)”이라 한다.

기구 → 기도

기념(commemoratio) - 기념일의 등급 참조

기념일의 등급(gradus memoriae)

기념일의 등급을 구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쓴다.

memoria obligatoria 의무 기념일

memoria ad libitum 선택 기념일

commemoratio 기념

기도(preces, intercessio, supplicatio)

기독교 →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의 한자 음역을 줄여쓴 말이므로, 비록 프로테스탄트 교파를 지칭할 때라도 이를 피하고, “그리스도교”라는 용어를 쓴다. 그리스도교라는 말에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형제들이 다 포함된다.

기름 - 성유 참조

기리에 → 자비송; 미사 통상문 4항

기초 교회 공동체(basic ecclesial/christian community)

소공동체 운동이라 불리는 신앙 생활 공동체 운동에서 쓰는 “소공동체”라는 용어에 그리스도교 개념을 담아 이를 “기초 교회 공동체”라 한다. 또한 소공동체는 “기초 교회 공동체”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기출 → 발출(spiratio : 교리서, 246항)

“spiratio”는 “processio”와 구분하여야 하지만, “기출”이라는 말이 어려우므로, “spiratio”도 “발출”이라 하되, 괄호 안에 라틴말을 쓴다.

깊은 절(inclinatio corporis)

몸을 깊이 숙여 하는 인사를 “깊은 절”이라 한다.

깨달음(intellectus)

통찰. 성령 칠은의 하나.

나태(pigritia, acedia)

칠죄종의 하나. ‘해태’를 ‘나태’로 바꾼다.

낭재, 규수 → 신랑, 신부

낮 미사 → 대축일 미사

넘이절

‘과월절(파스카)’이라는 말이 어렵다고 보아, 쉬운 우리말인 ‘넘이절’로 바꾸어 써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여겨, ‘과월절’이라는 용어와 함께 ‘넘이절’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가리킬 때에는 ‘파스카’를 그대로 쓰고, ‘유월절’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농민 주일

7월 셋째 주일

누룩 없는 빵의 축제

‘무교절’이라는 말이 어렵다고 보아, 이 용어와 함께 ‘무누룩절’, ‘누룩 없는 빵의 축제’라는 말을 시험적으로 사용한다.

뉘우침(contritio, attritio)

‘contritio, attritio’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설명에 따라 ‘뉘우침’이라 하고, 상등 또는 하등 통회를 구분하여야 할 때에는 ‘완전한 뉘우침’, ‘불완전한 뉘우침’이라 하고, 필요하다면 ‘통회’라는 말도 함께 쓴다.

늘 있는 은총(gratia habitualis)

주어진 은총으로 우연적이지만 본성처럼 된 ‘gratia habitualis’를 ‘상존은총’이라 하되 “늘 있는 은총”, “언제나 은총”을 그 대안으로 쓸 수 있으며, 이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성화은총”, “생명은총” 등을 쓴다.

다수 지향(multiplicatio)

“multiplicatio”는 “다수 지향”, “duplicatio”는 “이중 지향”이라 한다.

뉘은 덕(virtutes acquisitae) - 받은 덕 참조

단련 교회 → 정화 교회(ecclesia purificans)

단식 → 금식재

단종(sterilitas) → 불임

담화(nuntius, messaggio) - 메시지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담화문 → 담화

답서(rescriptum)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당가 → 재정 담당

대감목 → 대주교 - 교계 제도의 명칭 참조

대경 → 따름노래

대례 미사 → 장엄 미사

대리 기도(suffragium)

다른 이를 위하여 바치는 “suffragium”은 “대리 기도”라 한다.

대리 보상 - 구속 참조

대미사 → 장엄 미사

대사(indulgentia)

“대사(大赦)”라는 용어가 교회 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 교과서 등에서 “면죄부”라고 사용되고 있어, 이를 분명히 밝혀 두기로 하였다. “면죄부”는 분명히 잘못된 용어이고, 일본에서도 “면죄부”를 오역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上智大學 中世思想研究所 編譯, [キリスト教史], 東京, 講談社, 1981), 중국에서도 “대사”로 쓰고 있으므로, 우리도 “대사”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letter of indulgence”도 “대사부”가 아닌 “대사”로 쓴다.

대사부 → 대사

대성전(basilica)

“basilica”는 “대성전”, “ecclesia cathedralis”는 “주교좌 성당”, “ecclesia”는 “성당”이라고 하되, 성서의 “정전”이라는 용어는 상징적인 의미로 쓴다.

대소재 - 금식재 참조

대속 - 구속 참조

대신덕(virtus theologica)

“믿음, 바램, 사랑” 또는 “신덕, 망덕, 애덕”을 가리키는 “대신덕”, “향주덕”이라는 두 용어는 함께 쓰고, “주부덕”은 너무 어려운 말이고 “신학 삼덕”은 틀린 용어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대응 종교개혁(counter-reformation)

“counter-reformation”이라는 말은 “대응 종교개혁”, “반종교개혁”을 함께 쓴다.

대의원 회의(synodus)

“concilium”은 “공의회”, “synodus”는 “대의원 회의”라 한다. 다만, 교회사에서 “synodus”를 지칭할 때 “교회 회의” 또는 단순히 “회의”라고 한다.

* synodus episcoporum 주교 대의원 회의

synodus dioecesana 교구 대의원 회의

대인덕<virtutes humanae(gratia elevatae)>

“virtutes humanae(gratia elevatae)”는 “대신덕(향주덕)”과 대비하여 “대인덕(對人德)”이라는 말을 쓴다.

대주교(archiepiscopus) - 교계 제도의 명칭 참조

대죄(죽을 죄), 소죄

(peccatum mortale et veniale: 교리서, 1854항 위 제목)

“peccatum mortale”는 지금까지 써 오던 대로 소죄와 대비하여 “대죄”라 하고 “죽을 죄”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대중라틴말성서(Vulgata)

이미 굳어진 학술 용어이기는 하지만, 좀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중라틴말성서’라 한다.

대중 성서 → 대중라틴말성서

대중 신심(religiositas popularis : 교리서, 1674항 등)

종교 심성이라는 말이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달리 쓰일 수 있으므로 ‘대중 신심’이라 한다.

대축일 미사(missa in die)

전야 미사가 있는 대축일 본일에 드리는 미사를 전야 미사와 구분하여야 할 때에는 ‘대축일 미사’라 표기한다. ‘낮 미사’나 ‘본일 미사’ 등의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예수 성탄 대축일의 낮 미사는 예외).

대칙서 - 칙서,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대표 위임 선출(electio per compromissum)

교황 선출 방법의 하나인 ‘per compromissum’은 ‘대표 위임 선출’이라 한다.

도움의 은총 - 현행은총 참조

독서기도(lectio divina, officium lectionis) → 영적 독서, 말씀기도 참조

독서대(pulpitum, ambo)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독서집(lectionarium)→ 미사 전례 성서

독성 → 신성 모독(sacrilegium)

독수 생활(vita anachoretica : 교회법, 제603조)

“은둔 생활”을 “독수 생활”로 고친다.

독수자(anachoreta)

수도 생활의 역사와 그 변천에 따라, “anachoreta”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각 독수자의 삶의 형태를 따라 살아가는 수도자를 일컫는 말이므로 “독수자”로, “황야에 나간 사람”이라는 뜻의 “eremita”를 “은수자”로 하되, 이 둘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다 같이 “은수자”로 쓴다.

동물혼 → 각혼

동방 교회 관련 용어

patriarcha oecumenicus 총대주교

(oecumenicus : 따로 지칭하지 않고 생략)

(Lord Pope, His Holiness : 전하)

patriarcha 총대주교

ecclesia patriarchalis 총대교구

sedes patriarchalis 총대주교좌

curia patriarchalis 총대교구청

metropolita 대주교

ecclesia metropolitana 대교구

archiepiscopus major 상급 대주교

ecclesia archiepiscopalis major 상급 대교구

episcopus (교구장) 주교

eparchia 교구

protosyncellus 총대리

syncellus 교구장 대리

exarcha (준교구장) 주교

exarchia 준교구

동일 본질(consubstantialitas)

“consubstantialitas”는 “동일 본질” 또는 “한 본체”라 한다.

동정, 동정녀(virginitas, virgo)

“virgo”가 반드시 여성을 지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정녀”라 하고, 그 밖의 경우나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같이 동격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동정”이라 쓴다.

동정 마리아 → 동정 성모

동질성 - 동일 본질 참조

두려워함(timor)

경외. 성령 칠은의 하나.

두 차례(binatio)

“binatio”는 “두 차례”(지냄), “trinatio”는 “세 차례”(지냄)라 한다.

따름노래(antiphona)

시편 앞뒤에 따르는 노래, 행렬을 따르며 부르는 노래인 “antiphona”는 “따름노래”라 한다. 다만,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경우(화답송, 성무일도의 시편기도 등)에는 “후렴”이라는 말을 그대로 쓴다.

딴 나라(지방) 사람(alienigena)

“originarius”에 대응하는 “alienigena”는 현지명이나 국가 이름을 붙여 표현하거나 “딴 나라(지방) 사람” 또는 “외국인”이라 한다.

딸림노래(sequentia)

“sequentia”는 “따름노래”(antiphona)와 대비하여 “딸림노래”라 한다.

띠(cingulum, zona)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라테라노 대성전 - 외국어 형용사의 표기 참조

라테란 대성전 → 라테라노 대성전

라틴어 성서 → 대중라틴말성서

로마 교황청 → 교황청

로사리오 → 묵주

로사리오 성월 → 묵주기도 성월

마몬 → 재물

마음기도(mental prayer)

소리를 내어 하는 기도인 “vocal prayer”를 “소리기도”라 하고, 마음 속으로 하는 기도인 “mental prayer”는 “마음기도”라 한다.

마지막 도유 → 종부

마침 예식(ritus conclusionis) - 미사 통상문 141항

말세 → 종말

말씀기도(officium lectionis)

성무일도의 독서기도를 “말씀기도”라 한다.

말씀의 전례 → 말씀 전례

말씀 전례(liturgia verbi) - 미사 통상문 7항

망덕(virtus spei)

항주덕을 나열하는 경우(믿음, 바람, 사랑)가 아니라 그 덕행 하나만을 언급할 때에는 “망덕”이라는 말을 그대로 쓴다.

망인 → 죽은 이

망자 → 죽은 이

매괴 → 묵주

맨발 수도회(discalceati)

“discalceati”는 “맨발 수도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머릿돌(lapis primarius, lapis angularis)

머릿돌, 모퉁잇돌, 주춧돌이라는 말은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에 처음 놓는 주춧돌을 가리키는 같은 뜻이지만,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에는 주로 “머릿돌”이라는 말을 쓴다.

메시지 - 담화,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면병 → 제병

면죄부 → 대사

‘대사(大赦)’라는 용어가 교회 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 교과서 등에서 ‘면죄부’라고 사용되고 있어, 이를 분명히 밝혀 두기로 하였다. ‘면죄부’는 분명히 잘못된 용어이고, 일본에서도 ‘면죄부’를 오역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上智大學 中世思想研究所 編譯, [キリスト教史], 東京, 講談社, 1981), 중국에서도 ‘대사’로 쓰고 있으므로, 우리도 ‘대사’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letter of indulgence’도 ‘대사부’가 아닌 ‘대사’로 쓴다.

명상 → 관상, 묵상

모고백 → 모고해

모고해(confessio sacrilega)

지금까지 써 오던 대로 “모고해”라 한다.

모독(blasphemia)

‘blasphemia’는 그냥 “모독”이라 한다.

모독죄 → 모독

모든 성인의 통공 - 성인의 통공 참조

모통잇돌 - 머릿돌 참조

몬시뇰(monsignor) - 교계 제도의 명칭 참조

몰아(ecstasis)

때에 따라 “몰아”, “탈혼”, “황홀경”이라는 말들을 함께 쓴다.

몽소 승천 → 성모 승천

무고자(calumniator : 교회법, 제1390조 3항)

“증상자”를 “무고자”로 고친다.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말이 어렵다고 보아, 이 용어와 함께 “무누룩절”, “누룩 없는 빵의 축제”라는 말을 시험적으로 사용한다.

무누룩절 - 누룩 없는 빵의 축제, 무교절 참조

무덤제대 → 수난 감실

무릎절(genuflexio)

장궤 인사를 “무릎절”이라 한다.

무릎틀(genuflexio)

장궤틀을 “무릎틀”이라 한다.

무지(ignorantia : 교회법, 제15조 1.2항; 서문 29 면 3.7행)

“부지”를 “무지”로 고친다.

묵념기도 → 마음기도

묵상(meditatio, recollectio)

“meditatio”는 지금까지 써 오던 대로 “묵상”이라 하고, “recollectio”라는 말의 뜻은 잡심이나 정념(淨念)에 가깝지만, 그 쓰임에 따라 “묵상” 또는 “피정”이라 한다.

묵상기도 → 마음기도

묵주(rosarium)

매괴는 해당화를 일컫고, 로사리오는 외국어이므로, 이전에 사용하던 “묵주”라는 말을 계속 사용한다. 또한 로사리오 성월은 “묵주기도 성월”이라 한다.

묵주기도 성월

10월. 로사리오 성월을 “묵주기도 성월”이라 한다.

문헌(documentum)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물수건(purificatorium) - 전례북, 성당 기물 명칭 참조

물신 → 재물

미론 - 성유 참조

미사 경본 → 미사 전례서

미사 독서 → 미사 전례 성서

미사보

“미사 수건”은 “수건”이라는 말 자체에 문제가 있고 또 미사 중에 사제가 손을 닦는 데 쓰는 수건과 혼동할 수 있어, “미사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미사 수건 → 미사보

미사 전례서(missale)

미사 경본이라 했던 “missale”를 “미사 전례서”라 한다.

미사 전례 성서(lectionarium)

“lectionarium”을 “미사 전례 성서”라 한다.

미사포 → 미사보

미색 → 음육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6월 25일에 가까운 주일

밀떡 → 제병

바람(virtus spei)

하느님을 바라는 향주덕의 하나. 희망, 희망의 덕.

박탈 처분 → 직무 파면 처분

박해(persecutio)

이미 정착된 ‘박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기술할 때에는 ‘교난’, ‘군난’과 같은 말도 함께 쓴다.

반그리스도 → 그리스도의 적

반나(banna) → 공고, 공시

반종교개혁 - 대응 종교개혁 참조

반지(anulus) - 전례북, 성당 기물 명칭(118면) 참조

받들(pietas)

공경. 성령 칠은의 하나.

받은 덕(virtutes infusae)

‘덕’을 구분하는 ‘virtutes infusae, virtutes acquisitae’라는 말은 ‘주부덕(注賦德)’ 등 어려운 한자어를 피하여 말 뜻 그대로 ‘받은 덕’, ‘닭은 덕’이라 한다.

발씻김 예식(lotio pedum)

‘세족례’는 일본에서 쓰는 용어이고(우리는 ‘탁족’이라는 말을 써 왔다), ‘씻김’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므로, 세족례를 ‘발씻김 예식’이라는 말로 바꾸어 쓴다.

발출(spiratio, processio : 교리서, 246항)

‘spiratio’는 ‘processio’와 구분하여야 하지만, ‘기출’이라는 말이 어려우므로, ‘spiratio’도 ‘발출’이라 하되, 괄호 안에 라틴말을 쓴다.

밤샘(vigilia)

‘vigilia’의 여러 가지 뜻에 따라, 부활 ‘vigilia’는 ‘성야’로, 일반 대축일의 ‘vigilia’는 ‘전야’로, 장례 등의 ‘vigilia’는 ‘밤샘’으로 쓴다.

방사 → 축복

방언 → 신령한 언어, 이상한 언어(glossalalia)

방인 → 본토인

배령하다 → 모시다, 받아 모시다

배필 - 신부(sponsa) 참조

베드로 성금(peter's pence)

영국에서 시작된 관행으로 본래 기부금 또는 세금의 성격을 띤 것이었으나 1534년에 끝났으며, 비오 9세 때 교황령 붕괴 이후 재정난 때문에 peter's pence를 다시 인정하고, 라테라노 조약 이후 지역 교회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 이를 “베드로 성금”이라 한다.

베드로 세습령 → 교황령

변론(disputatio : 교회법, 제1604조 2항)

“토론”을 “변론”으로 고친다.

병자성사(unctio infirmorum)

일곱 성사의 하나.

병자 성유(oleum infirmorum)

성유의 한 종류

병자 영성체(communio infirmorum)

“communio infirmorum”은 “병자 영성체”라 한다.

보상(satisfactio) - 구속 참조

보속(satisfactio, poenitentia) - 구속 참조

“구속”과 달리 고해성사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적절한 방법으로 “배상”하거나 “대속”하는 죄 갚음을 “보속(poenitentia)”이라 한다.

보좌 신부(vicarius parochialis)

본당 사목구 주임의 협력자로서 주임의 권위 아래 사목 교역을 수행하는 신부.

보좌 주교(episcopus auxiliaris) - 교계 제도의 명칭 참조

보편되다 - 보편성 참조

보편 사제직(sacerdotium commune)

“직무 사제직(sacerdotium ministeriale)”에 대비되는 말로 모든 신자가 세례로써 받는 사제직을 “보편 사제직”이라 한다.

보편성(catholicitas)

“catholicitas”를 “보편성”이라 한다. 현대 교회론에서 “가톨릭(catholic)”은 보편성, 충만성, 통일성, 단일성의 의미들로 해석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지역적 시간적 보편성과 정통성, 교회의 세계성을 가리켰으므로, “보편성”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보편성”이라는 말이 “가톨릭”의 뜻을 다 담아 내는 데 부족하지만, 지금은 이보다 더 적합한 용어가 없다.

보편 지향 기도(oratio universalis, seu oratio fidelium)

미사 통상문 16항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Memoria Beatae Mariae Virginis Reginae)

“복되신 모후 동정 마리아”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라 한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신 축일

(Festum in Nativitate Beatae Mariae Virginis)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탄”을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신”이라 한다.

복되신 모후 동정 마리아 →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복사(minister)

“봉사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어, 미사 등 예절을 거행할 때에 주례를 도와 시종하는 사람이나 그 일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복사”라고 한다.

복음 권고 → 복음적 권고

복음 기자 → 복음사가, 복음서 저자

복음사가(evangelista)

“복음서 저자”라는 말과 함께 사용한다.

복음 삼덕 → 복음적 권고

복음서 저자(evangelista)

‘복음사가’라는 말과 함께 사용한다.

복음 선포(praedicatio)

‘praedicatio’는 ‘복음 선포’라 하고,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homilia’는 ‘강론’이라고 하되,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미로 ‘설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복음 저자 → 복음사가, 복음서 저자

복음적 권고(consilia evangelica)

‘consilia evangelica’를 복음 권고라 하면 곧바로 ‘정결, 청빈, 순명’으로 알아듣기가 어렵다고 보아, 지금까지 써 오던 대로 ‘복음적 권고’라 한다.

복음 전 노래 → 복음 환호송

복음화(evangelizatio)

‘복음화(evangelizatio)’는 폭넓은 의미로 쓰고, ‘선교(missio)’와 ‘전교’는 병행하여 사용한다. ‘선교’는 적극적인 복음 전파로서 그 대상이 폭넓은 느낌을 주는 말이고 ‘전교’는 그 대상이 개인적이라는 어감을 지니고 있으나,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경우 전교 단체 등의 고유 명사가 많아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두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한다.

복음 환호송(alleluia vel versus ante evangelium)

미사 통상문 10항

본명 → 세례명

본방인 → 본토인

본성(natura) - 본체 참조

본일 미사 → 대축일 미사

본질(essentia) - 본체 참조

본체(substantia)

‘본체(substantia)’라는 신경의 용어에 이의가 제기되어 이를 재론하고, 하느님의 자존재(subsistentia) 안에서 위격(persona, hypostasis)의 일체(una natura)를 가리키는 말인

“substantia, essentia, natura”는 거의 같은 의미에서 “본체” 또는 “실체”, “본질”, “본성”이라 한다.

본토인(originarius)

“본방인”, “방인”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지명이나 국가 이름을 붙여 “한국인”, “일본인” 등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특정한 지역이나 국가를 일컫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 나라(지방) 사람” 또는 “본토인”이라 한다.

봉사(ministerium)

교회의 직무 관련 용어들을 논의하고, 일반적인 뜻으로 쓰이는 “ministerium”은 “봉사”라고 하되, 성직자가 하는 “ministerium”을 구분하여 말하고자 할 때에는 “교역(따라서 minister는 교역자, clericus는 성직자)”이라 하기로 하고, “officium”은 “직무”, “munus”는 “임무”라는 말로 써 나가지만, 공식 용어로 확정하는 것은 미룬다.

봉사자 - 복사 참조

봉성체 → 병자 영성체

봉성체갑(theca)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봉헌(dedicatio)

성당 등을 축성을 통하여 바치는 “dedicatio”는 “축성”이라 하지 않고 “봉헌”, “봉헌식”이라는 말을 쓴다. “성당 봉헌식(dedicatio)”에는 “축성”과 “축복” 두 가지가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제대 등을 축성하지만, 임시 건물 등에는 제대를 도유하지 않고 단순히 “축복”만 하기도 한다.

봉헌기도 → 예물기도

봉헌금(oblatio : 교회법, 제848조)

“기부금”을 “봉헌금”으로 고친다.

봉헌 생활(vita consecrata : 교회법, 제573조 1항)

“축성 생활”을 “봉헌 생활”로 고친다. “축성(consecratio)”이라는 말이 우리 나라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성별(聖別)”의 개념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데에다 실제 용례에서도 “축복(benedictio)” 등의 용어와 혼동되고 있

다. 수도 생활은 본래 축성 생활보다 봉헌 생활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보아, 교회법전 번역 이전까지 수도 생활을 일컫던 좋은 말인 “봉헌 생활”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한다. (라틴말의 “consecrare”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현대 이탈리아말에서는 “consacrare, dedicare, deificare, divinizzare, immortalare, eternare, santificare” 등 여러 가지로 번역하여 쓴다. 이를 “축성”으로만 알아들어 “축성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 “수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생활을 전제로 하는 좀더 좁은 범주의 개념이고 이에 대해서는 “vita religiosa”라는 또 다른 말이 있으므로, “vita consecrata”를 “봉헌 생활”로 하기로 한 것이다.)

봉헌 생활의 날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

봉헌식 - 봉헌 참조

부교구장 주교(episcopus coadjutor)

“부주교(episcopus coadjutor)”를 주교가 아닌 직위로 혼동할 수 있어 “부교구장 주교”라 한다.

부속가 - 딸림노래 참조

부정신학(apophasis)

부정의 방법(否定 方法 : via negativa)으로 전개하는 신학을 “부정신학(apophasis)”이라 하고, 이에 대비되는 (초절의 방법, 인과의 방법 등으로 전개하는) 신학을 “긍정신학(kataphasis)”이라 한다.

부제복(dalmatica) - 전례복/성당 기물 명칭 참조

부주교 → 부교구장 주교

분규 - 이교 참조

분노(ira)

칠죄종의 하나.

분열 - 이교 참조

분파(secta religiosa)

“secta religiosa”는 “분파” 또는 “종파”라 한다.

불가타 성서 → 대중라틴말성서

불완전한 뉘우침(attritio) - 뉘우침 참조

불임(sterilitas)

“sterilitas”는 “불임”이라 한다.

비밀 투표 선출(electio per scrutinum)

교황 선출 방법의 하나인 “per scrutinum”은 “비밀 투표 선출”이라 한다.

비의(anagogia)

성서의 영성적 의미를 찾는 고등 해석의 한 개념인 “anagogia”를 “비의(秘義)”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용어 사용에 따라 “analogia”는 “유비” 또는 “유추”라 하고, “allegoria”는 “우의” 또는 “우화”라 한다.

비하 → 자기 비움(exinanitio)

비허 → 자기 비움(exinanitio)

사도 계승성 → 사도 전래성

사도됨 → 사도 전래성

사도성 → 사도 전래성

사도예절(敕禱禮節: absolutio super tumbam) → 고별기도 참조

사도적 권고 → 교황 권고

사도적 서한 → 교황 교서

사도적 헌장 → 교황령(敎皇令)

사도 전래성(apostolicitas)

"apostolicitas"는 "사도 전래성"이라 한다.

사도 전승성 → 사도 전래성

사도좌(sedes apostolica)

"sedes apostolica"는 "사도좌"라 한다.

국제 사회에서 "사도좌"의 속칭으로 "성좌(Sedes Sancta, Holy See)"라는 말을 써 오던 관례를 존중하되, "성청"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curia romana"는 "교황청"이라 한다.

사도좌 문서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사도좌 봉쇄 구역, 사도좌 봉쇄 수녀원

(clausura papalis pro monialibus)

"Clausura papalis pro monialibus"는 "사도좌 봉쇄 구역" 또는 "사도좌 봉쇄 수녀원"이라 한다.

사도좌 순시자 - 교황청 순시자 참조

사도좌 파견 조사관 → 교황청(사도좌) 순시자

사말(novissima) → 종말 실재

사망자 - 죽은 이 참조

사목 평의회(consilium pastorale) - 교계 제도의 명칭 참조

사백주일(dominica in albis)

"dominica in albis"는 이제 쓰이지 않는 말이므로 예전대로 “사백주일”이라 하되, 필요하다면 “흰 옷 벗는 주일”을 함께 쓴다.

사심판 → 개별 심판

사욕(concupiscentia) - 탐욕 참조

“탐욕”이라는 말을 일반적인 의미로 쓸 때에는 “사욕(邪慾)”이라는 말도 같이 쓴다.

사제(sacerdos) - 교계 제도의 명칭 참조

주교 포함

사제각모(biretum)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사제단(presbyterium) - 교계 제도의 명칭 참조

주교 포함

사제석(sedes sacerdotis)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119면) 참조

사제 성화의 날

예수 성심 대축일

사제 평의회(consilium presbyterale) - 교계 제도의 명칭 참조

사추덕(virtutes cardinales)

"virtutes cardinales"는 지금까지 써 오던 대로 “사추덕(四樞德)”이라 하고, 그 개별 명칭으로 “prudentia”는 “예지”, “iustitia”는 “정의”, “fortitudo”는 “용기”, “temperantia”는 “절제”라 한다.

사회 복지 주일

1월 마지막 주일

산상보훈 → 산상설교

산상복음 → 산상설교

산상설교(sermo in monte)

마태오 복음 5-7장. “sermo in monte”는 “산상설교”라 한다.

산상수훈 → 산상설교

산아제한 → 산아조절, 자연 가족계획

산아조절(birth control)

"산아제한"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므로, "산아조절"이라는 말을 쓴다.

산 이를 위한 미사 -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참조

산전(산후) 축복<benedictio mulieris ante(post) partum>

"benedictio mulieris ante(post) partum"은 "산전(산후) 축복"이라 한다.

삼위일체(Sancta Trinitas)

삼위일체라는 말의 조어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Sancta Trinitas"는 "영삼위"와 "삼위일체"라는 말을 함께 쓴다.

삼중관 → 교황 삼총관

상등 통회 → 완전한 뉘우침

상소(provocari: 교회법, 제1644조 1항)

"항소"를 "상소"로 고친다.

상존성총 → 상존은총

상존은총(gratia habitualis)

주어진 은총으로 우연적이지만 본성처럼 된 "gratia habitualis"를 "상존은총"이라 하되 "늘 있는 은총", "언제나 은총"을 그 대안으로 쓸 수 있으며, 이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성화은총", "생명은총" 등을 쓴다.

새로 남(regeneratio: 교리서, 556항)

"regeneratio"를 "거듭 남, 재생"으로 써 왔지만, "새로 남"이라 한다.

새 신자(neophytus)

"neophytus"는 "새 신자"라 한다.

생명 나무(십자가 : lignum vitae)

십자가를 가리키는 "lignum vitae"는 "생명 나무"라 하고, 필요하다면 "십자가"를 괄호

안에 적는다.

생명수 → 생명 나무

생명은총 - 상존은총 참조

생명의 날

5월 마지막 주일

생미사 → 산 이를 위한 미사

생혼(anima vegetativa)

지금까지 써 오던 대로 “생혼”이라 한다.

서간(- -서: epistula)

신약성서 서간의 개별 명칭은 서간, 편지, 서한(-서)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서약(professio)

“professio”는 사안에 따라 “저원”, “저약”, “전서”라는 말을 병용한다.

서원(votum, professio)

“votum”은 “저원”이라 하고, “professio”는 사안에 따라 “저원”, “저약”, “전서”라는 말을 병용한다.

서원식(ritus professionis)

professio를 선서라 하더라도, 그 예식은 지금까지 써 오던 대로 “서원식”이라 한다.

서품성사 → 성품성사

서품식(ordinatio)

성품을 주는 예식이라는 뜻에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써 오던 대로 “서품식”이라 한다.

서품 위임서 → 수품 허가서

서품자(minister ordinationis)

“서품(敍品)”이라는 말은 “품을 준다”는 뜻이어서 성품 받은 사람을 “서품자”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므로, 관련 용어를 “성품 주는 이(서품자)”, “성품 받는 이(수품자)”로 바꾸어 쓴다.

서품 허가서 → 수품 허가서

서품 후보자 → 수품 후보자

서한(litterae)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서한(-서 : epistula)

신약성서 서간의 개별 명칭은 서간, 편지, 서한(--서)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선교

"복음화(evangelizatio)"는 폭넓은 의미로 쓰고, "선교(missio)"와 "전교"는 병행하여 사용한다. "선교"는 적극적인 복음 전파로서 그 대상이 폭넓은 느낌을 주는 말이고 "전교"는 그 대상이 개인적이라는 어감을 지니고 있으나,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경우 전교 단체 등의 고유 명사가 많아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두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한다.

(자치) 선교구(statio missionaria)

"statio missionaria"는 공소(statio secundaria)와 구별하여 "(자치) 선교구"라 한다.

선교의 수호자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대축일

(Memoria S. Francisci Xavier presbyteri)

"포교 사업의 수호자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를 "선교의 수호자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라 한다.

선교의 수호자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대축일

(Memoria S. Teresiae a Iesu Infante virginis et ecclesiae doctoris)

"포교 사업의 수호자 예수 아기의 성녀 데레사 동정"을 "선교의 수호자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라 한다.

선생(professor) - 장상 참조

선서(professio)

"professio"는 사안에 따라 "서원", "서약", "선서"라는 말을 병용한다.

선서식 → 서원식

선언(declaratio)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선업(bona opera : 교리서, 1477항)

"선업"이 불교 용어이고 "선행"이라는 말로 옮길 수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항에서는 "선업"이라는 말을 쓴다.

선죽 수도회 → 맨발 수도회

선택 기념일(memoria ad libitum) - 기념일의 등급 참조

설교(sermo)

"praedicatio"는 "복음 선포"라 하고,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homilia"는 "강론"이라고 하되,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미로 "설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설교학(homiletica)

강론과 설교를 구분하더라도, "homiletica"는 "설교학"과 "강론학"이라는 말을 함께 쓴다.

설립법(lex foundationis : 교회법, 제149조)

"창설법"을 "설립법"으로 고친다.

설립자(fundator : 교회법, 제121조)

"창설자"를 "설립자"로 고친다.

성(省 : congregatio) - 교황청 기구 명칭 참조

성, 성녀(Sanctus, Sancta)

성인의 이름을 구분하기 위하여 "성, 성녀"를 그대로 쓴다.

성경(Biblia Sacra)

"성서"를 주로 사용하되, "성경"도 사용할 수 있다.

성경 소구 → 짧은 독서(lectio brevis)

성광(ostensorium)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성구 → 성당 기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한국 성인의 이름은 우리말 이름 다음에 세례명을 표기한다.

성녀 헤드비히 수도자 기념(Memoria a.l. S. Hedvigis, religiosae)

"성녀 헤드비제 수도자"를 "성녀 헤드비히 수도자"라 한다.

성년(annus sanctus)

"성년"과 "희년"은 성서적인 의미와 교회 전통을 따라 함께 사용한다.

성당(ecclesia)

"ecclesia"는 "성당"이라고 하되, 성서의 "성전"이라는 용어는 상징적인 의미로 쓴다. 또한 소성당이나 경당(sacellum, oratorium)도 일반적으로 다 "성당"이라 하고, "성당(ecclesia)"과 법적 구분이 필요할 때에만 "경당"이라 한다.

성당 기물(sacrae supellectiles)

"sacrae supellectiles"는 성물은 물론 전례 설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므로, 이를 "성당 기물"이라 한다.

성당 명칭의 표기

성당(건물 또는 장소)의 명칭은 "천주교 ○○동 성당"이라 표기한다.

성도들의 친교 - 성인의 통공 참조

성령(Spiritus Sanctus)

"성신" 대신에 "성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삼위일체의 제3 위격을 뜻하는 "Spiritus Sanctus"는 "하느님(神)"의 열, 숨, 입김, 바람과 영을 뜻하는 성서 용어(t'Wr, πνευμα)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는 동적인 우리말 "성령"으로 통일한다. 성부도 성자도 "神"이신데 제3 위격만을 "聖神"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위격 명칭에서 조화를 잃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신(神)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 청원 기도(epiclesis)

"epiclesis"를 "초령 기도"라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성령 청원 기도"라 한다.

성령 칠은

"성령 칠은"은 다음과 같이 한자어와 우리말을 함께 쓴다.

지혜, 슬기(sapientia)

통찰, 깨달음(intellectus)

의견, 일깨움(consilium)

용기, 굳셈(fortitudo)

지식, 앎(scientia)

공경, 받들(pietas)

경외, 두려워함(timor)

성 마리아 → 성모 마리아; 미사 통상문 3항

성모 마리아(Sancta/Beata Maria) - 미사 통상문 3항

흔히 “성 마리아”라고 써 오던 표현을 “성모 마리아”로 쓴다.

성모 성월

5월

성모 승천(대축일)

"ascensio"와 "assumptio"를 우리말로 구별하기가 어려우므로, “성모 승천”이라는 말을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 “몽소 승천(蒙召昇天)”, “피승천(被昇天)”, “소천(召天)” 등의 말도 함께 검토하였으나, 모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성무 봉헌금(oblaciones pro ministratione sacramentorum)

"oblaciones pro ministratione sacramentorum"은 “성무 봉헌금”이라 한다.

성무 사례 → 성무 봉헌금

성물 → 성당 기물

성 바오로 사도의 개종 축일

(Festum in Conversione S. Pauli, Apostoli)

"개종"을 “회두”로 고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개종”이라는 말이 의미도 잘 맞아 이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둔다.

성반(patena)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성변화 → 실체 변화(transsubstantiatio)

성사 미사 → 특별 예식 미사

성삼 → 성삼위

성삼위(Sancta Trinitas)

삼위일체라는 말의 조어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Sancta Trinitas”는 “성삼

위 '와 '삼위일체'라는 말을 함께 쓴다.

성서(Biblia Sacra)

"성서"를 주로 사용하되, "성경"도 사용할 수 있다.

성서학교 - 주일학교 참조

성세 → 세례

성세성사 → 세례성사

성세수 → 세례수

성소 주일

부활 제4주일

성수(aqua benedicta)

"aqua benedicta"는 "성수", "aqua baptismalis"는 "세례수"라 한다.

성수채(aspergillum)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성수 축복(benedictio aquae)

"축성(consecratio)"은 "축복(benedictio)"과 명확하게 구별하여야 하므로, "성수 축성"이라는 말은 "성수 축복"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성수 축성 → 성수 축복

성신 → 성령

성야(vigilia paschalis in nocte sancta)

"vigilia"의 여러 가지 뜻에 따라, 부활 "vigilia"는 "성야"로, 일반 대축일의 "vigilia"는 "전야"로, 장례 등의 "vigilia"는 "밤샘"으로 쓴다.

성 요셉 성월

3월

성월(聖月)

"성월"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성 요셉 성월(3월)

성모 성월(5월)

예수 성심 성월(6월)

순교자 성월(9월)

묵주기도 성월(10월) (“로사리오”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전교의 달(10월)은 달로 그대로 둔다.

위령 성월(11월)

성유(chrisma, oleum pro chrismate)

“크리스마(μυρον)”가 곧 기름이고 성유이므로 “크리스마 성유”라는 말은 잘못된 용어일 뿐 아니라 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말이며, 축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성유가 곧 크리스마이므로, “크리스마 성유”를 “축성 성유”로 바꾸어 쓴다. 따라서, 성유의 종류는 “축성 성유”, “병자 성유”, “예비신자 성유”이다. “세례 성유”라는 말은 “축성 성유”와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 쓰지 않는다.

성음악(musica sacra) - 교회 음악 참조

원칙적으로 “성음악” 대신에 “교회 음악”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되, 사안에 따라 “성 음악”, “전례 음악”, “종교 음악”이라는 말을 쓴다.

성인의 통공(Communio Sanctorum)

신경에서는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 하고, 그 말이 모든 성도의 친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용어 자체는 “성인의 통공”이라 한다.

성작(calix)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성작 덮개(palla)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성작 수건(purificatorium)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성전(templum)

“basilica”는 “대성전”, “ecclesia cathedralis”는 “주교좌 성당”, “ecclesia”는 “성당”이라고 하되, 성서의 “성전”이라는 용어는 상징적인 의미로 쓴다.

성전(Traditio)

성서와 함께 “교회에 맡겨진 하느님 말씀의 유일하고 거룩한 유산”을 이루는 전통을 “성전(聖傳)”이라 하고, 성서와 함께 쓰지 않을 때에는 “전통”과 “전승”이라는 말도 사용한다. 다만, “전통”은 그 내용을, “전승”은 그 흐름을 가리키는 말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

다.

성좌(Sancta Sedes, Holy See) - 사도좌, 교황청 참조

성지, 순례지(terra sancta, sanctuaria)

"성지(terra sancta)"는 본래 예수님과 관련된 이스라엘 땅을 말하지만, 성모님이나 성인 또는 순교자 관련 사적지나 "순례지(sanctuaria)"를 일반적으로 "성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는다.

성찬 감사송(Praefatio de ss.ma Eucharistia) - 미사 통상문 56항

성찬기도 → 감사기도

성찬 봉사자 → 성체 분배자

성찬의 전례 → 성찬 전례

성찬 전례(liturgia eucharistica)

미사 통상문 17항

성찬 제정문(Institutionis Narratio : 교리서, 1353항)

"Institutionis Narratio"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찬 제정문"이라 한다.

성청 → 교황청

성체 감사송 → 성찬 감사송

성체 거동(Processio SS. Sacramenti)

"Processio SS. Sacramenti"는 "성체 행렬"과 "성체 거동"이라는 말을 함께 쓴다.

성체 거동 → 성체 행렬, 성체 거동

성체 거양(들어올림; elevatio)

"거양 성체"는 조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성체 거양(들어올림)"이라 한다.

성체 분배자

(minister extraordinarius S. Communionis distribuendae)

사제와 부제는 모두 정상적인 성체 분배자이지만 이들을 성체 분배자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성체 분배권을 받은 다른 이들을 "예외적"이라는 표현 없이

그저 “성체 분배자”라고 하여도 혼동의 염려는 없다고 보아, “성체 분배자”라 한다.
성체성사(sacramentum eucharistiae)

일곱 성사의 하나

성체포(corporale) - 전례북,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성체 행렬(Processio SS. Sacramenti)

'Processio SS. Sacramenti'는 “성체 행렬”과 “성체 거동”이라는 말을 함께 쓴다.

성품 받는 이(ordinatus) - 수품자 참조

성품성사(sacramentum ordinis)

"신품성사"라는 말은 부제품과 주교품을 다 포함하지 못하므로 “서품성사”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서품을 가리키는 말로는 “ordinatio”라는 용어가 따로 있어, 이전의 신품성사를 “성품성사”라 하고, 각 품격을 가리키는 말은 “품계(ordo)”라 한다.

성품 주는 이(minister ordinationis) - 서품자 참조

성 한재권 요셉 순교자

한원서 성인의 이름은 한재권으로 바로잡는다.

성합(pyxis) - 전례북,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성호(signum crucis) → 십자성호; 미사 통상문 2항

성화은총 - 상존은총 참조

세계 공의회(concilium oecumenicum) - 공의회 참조

세계 병자의 날

2월 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세계성 - 보편성 참조

세계 평화의 날

1월 1일

세례당 → 세례대, 세례소

세례대(baptisterium, fons baptismalis)

"baptisterium"과 "fons baptismalis"는 모두 "세례대" 또는 "세례소"라 한다.

세례명

"본명"은 가장 정확한 표현인 "세례명"이라고 하되, "영명 축일" 등의 용어는 함께 사용한다. "본명"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세례반 → 세례대, 세례소

세례 사제직 - 보편 사제직 참조

세례성사(sacramentum baptismi)

"sacramentum baptismi"는 "성세성사"라 하지 않고 "세례성사"라 한다.

세례 성수 → 세례수

세례 성유 → 예비신자 성유

세례소(baptisterium, fons baptismalis)

"baptisterium", "fons baptismalis"는 "세례당"이나 "세례반"이라 하지 않고 모두 "세례소" 또는 "세례대"라 한다.

세례수(aqua baptismalis)

"aqua baptismalis"는 "세례수", "aqua benedicta"는 "성수"라 한다.

세례 준비기(catechumenatus)

"catechumenatus"는 "세례 준비기"라 한다.

세례 지원기 → 세례 준비기

세말 - 종말 참조

세세에 → 영원히

세습 자산(patrimonium : 교회법, 제578조)

"세습 재산"을 "세습 자산"으로 고친다.

세족례 → 발씻김 예식

세 차례(trinatio)

"trinatio"는 "세 차례"(지냄), "binatio"는 "두 차례"(지냄)라 한다.

소공동체 - 기초 교회 공동체 참조

소리기도(vocal prayer)

소리를 내어 하는 기도인 “vocal prayer”를 “소리기도”라 하고, 마음 속으로 하는 기도인 “mental prayer”는 “마음기도”라 한다.

소백의<rochet(t)us>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소성당(sacellum) → 경당, 성당 참조

소원(recursus : 교회법, 제1649조 2항)

"향고"를 “소원”으로 고친다.

소천 → 성모 승천

소칙서(brevis)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속량(redemptio) - 구속 참조

속죄(expiatio, propitiatio, satisfactio)

"죄를 기워 갚는다"는 뜻으로 십자가의 구속 희생을 가리키는 용어들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사용한다.

expiatio, propitiatio 속죄(성전 개념)

satisfactio, - substitutiva 보상 또는 보속, 대리 보상 또는 대속(법정 개념)

redemptio 대속, 대속물, 구속, 속량(시장 개념)

reconciliatio 화해(가정 개념)

수난 감실

<locus (sacellum) repositionis sanctissimi sacramenti>

이 용어의 뜻, 성목요일의 전례 관습, 그 역사와 조금 다르지만, 우리 신자들의 신심과 현행의 관습을 고려하여 이를 “수난 감실”이라 부른다.

수덕(ascetismus)

"ascetismus"는 “수덕”이라 하고, 필요할 경우 “고행(금욕)”이라는 말도 함께 쓴다.

수도원(domus religiosa, monasterium, conventus)

여러 가지 수도원 또한 우리말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의 용어들을 모두 “수

도원(또는 수녀원)이라 하고, 구분이 필요할 때에는 괄호 안에 라틴어를 적는다.

수도자, 수녀(monachus - monialis, religiosus - religiosa, frater - soror, regularis)

여러 가지 형태의 수도 생활을 하는 이들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모두 “수도자(또는 “수녀”)라 하고, 구분이 필요할 때에는 괄호 안에 라틴어를 적는다. 또한 “conversus”는 “평수사”, “cooperator”는 “협력자”라 한다.

수도회(institutum, ordo, congregatio, societas, religio fratrum)

여러 가지 수도회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의 용어들을 모두 “수도회”라 하고, 구분이 필요할 때에는 괄호 안에 라틴어를 적는다. 다만, “religio fratrum”을 구분하여야 할 때에는 “평수사회”라 한다.

수도회 미사(missa conventualis)

수도 공동체에서 거행하는 “missa conventualis”는 “수도회 미사”라 한다.

수련장 보조(professor) - 장상 참조

수선탁덕 → 첫사제

수세(baptismus ex aqua)

물로 받는 세례를 혈세나 화세에 대비하여 “수세”라 한다.

수위권(primatus)

교황 또는 관구장 대주교가 지니는 “primatus”가 실제로 라틴 교회에서는 교황만이 행사하는 것이어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수위권”이라 한다.

수정(inseminatio) - 임신 참조

수태 - 임신 참조

수품식 → 서품식

수품자(ordinatus)

“서품(敍品)”이라는 말은 “품을 준다”는 뜻이어서 성품 받은 사람을 “서품자”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므로, 관련 용어를 “성품 주는 이(서품자)”, “성품 받는 이(수품자)”로 바꾸어 쓴다.

수품 허가서(litterae dimissoriae : 교회법, 제1015조)

본래의 뜻에 따라, “서품 허가서”를 “수품 허가서”로 고친다.

수품 후보자(promovendus : 교회법, 제1016조)

"서품 후보자"를 “수품 후보자”로 고친다.

순교, 순교자(martyrium, martyr)

그리스도교 이전 구약의 경우에도 “martyrium”과 “martyr”는 “순교”, “순교자”라 한다.

순교자 성월

9월

순례 교회(ecclesia peregrinans)

지상의 교회를 “순례 교회(ecclesia peregrinans)” 또는 “투쟁 교회 (ecclesia militans)”라 한다.

순례지 - 성지 참조

슬기(sapientia)

지혜. 성령 칠은의 하나.

승리 교회(ecclesia triumphalis)

천상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인 “ecclesia triumphalis”를 “승리 교회”라 하고, 연옥의 교회는 “정화 교회(ecclesia purificans)”, 지상의 교회는 “순례 교회(ecclesia peregrinans)” 또는 “투쟁 교회(ecclesia militans)”라 한다.

시노드(synodus) - 대의원 회의 참조

시작 예식(ritus initiales) - 미사 통상문 1항

식물혼 → 생혼

신공 → 기도, 신심 행위(exercitio pietatis)

신교 → 개신교

신도 → 평신도

신랑, 신부(sponsus, sponsa)

"낭재"라는 말이 혼인할 것으로 정해진 남자가 아니라 특정하지 않은 신랑감을 가리키는 옛말이므로, 곧 혼인할 남자나 여자라는 뜻으로도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 “신랑, 신부”

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곧 혼인할 사람을 갖 혼인한 사람과 구분하여야 할 때에는 ‘예비신랑, 예비신부’라는 말을 쓴다.

신령성체(communio spiritualis)

마음으로 영성체를 한다는 ‘신령성체’라는 말이 어렵기는 하지만, 적절한 다른 용어가 없어 이 말을 그대로 쓴다.

신령한 언어(glossalalia)

"glossalalia"를 ‘방언’이라 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신령한 언어” 또는 “이상한 언어”라 한다.

신문 교우 → 새 신자

신부(presbyter, pater) - 교계 제도의 명칭 참조

"presbyter"는 “신부”라 하되, 법률상 부득이 “신부(pater)”라는 경칭과 구분하여야 할 때에는 “탁덕”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신부(sponsa)

"sponsa"는 “신부”, “정배”, “배필”이라는 말을 다 쓴다.

신성(divinitas)

"신성"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신성을 강조할 때에는 “천주성”이라는 말도 쓴다.

신성 모독(blasphemia) → 모독

신성 모독(sacrilegium)

"sacrilegium"은 “신성 모독”이라 한다.

신심 단체(confraternitas)

"confraternitas"는 “신심 단체”라 한다.

신심 행위(exercitio pietatis)

신심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행위인 “exercitio pietatis”는 “신심 행위”라 한다.

신심회 → 신심 단체(confraternitas)

신앙감 → 신앙 감각

신앙 감각(sensus fidelium, sensus fidei)

공의회 문헌 등에 나타난 이 용어의 의미(성령께서 신앙 문제에 대하여 신자들의 직관적 인식과 판단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덕분에 신자들은 그들이 체험하고 있는 영성적 현실에 대하여 아주 심오한 내적 이해를 향유하게 된다.)와 관련하여, “믿는 이들의 공통 이해”, “공통 신앙 이해”, “신앙 동의(일치)”, “신앙감”, “신앙 감성” 등의 용어를 검토하였으나,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아, 둘 다 “신앙 감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신앙 감성 → 신앙 감각

신앙 규범(regula fidei)

"regula fidei"는 “신앙 규범”과 “신앙 기준”이라는 말을 함께 쓴다.

신앙 기준 - 신앙 규범 참조

신앙 의식 → 신앙 감각

신앙학교 - 주일학교 참조

신약성서 서간의 개별 명칭

서간, 편지, 서한(-서)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신자 - 평신도 참조

신자들의 기도 → 보편 지향 기도

신전 교회 → 투쟁 교회(ecclesia militans)

신품성사 → 성품성사

신학 삼덕 → 대신덕, 향주덕

신학생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제 지망생을 학사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냥 “신학생”이라고 한다.

신행 → 신심 행위(exercitio pietatis)

신흥 종교 - 분파 참조

실체 - 본체 참조

실체 변화(transsubstantiatio)

"transsubstantiatio"는 “실체 변화”라 한다.

십분의 일 세 - 십일조 참조

십일조(decimae)

"십분의 일 세"라는 말이 가장 정확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써 오던 “십일조”라는 말을 계속 쓴다.

(십자가) 일곱 말씀

가상칠언(架上七言)이라는 한자어가 알아듣기 어렵다고 보아, “(십자가) 일곱 말씀” 또는 “일곱 말씀”이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악령 추방 - 구마 참조

알렐루야 - 복음 환호송 참조

앎(scientia)

지식. 성령 칠은의 하나.

애금(哀矜) → 자선

애금시사(哀矜施捨) → 자선

애령회 - 위령회 참조

야경 → 전야, 밤샘

양식(stilus : 교회법, 제63조 1항)

"격식"을 "양식"으로 고친다.

양형 성찬 → 양형 영성체

양형 성체 → 양형 영성체

양형 영성체(communio sub utraque specie)

"communio sub utraque specie"는 "양형 영성체"라 한다. "양형 성찬"이라는 말은 "성찬"이 언제나 양형으로 거행되는 것이어서 "communio sub utraque specie"를 분명하게 지칭하는 데에는 부적절한 용어이다. "영성체"의 개념이, 비록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므로, 이 용어에서 굳이 "성혈"이라는 개념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얇은 절(inclinatio capitis)

고개로 가볍게 하는 인사를 "얇은 절"이라 한다.

어깨보(humerale)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어린이(parvulus)

세례의 연령 구분 등에 필요한 말로, 7세 미만의 아이는 "유아(幼兒 : infans)", 7-13세의 아이는 "어린이(parvulus)"라 한다.

언제나 은총 - 상존은총 참조

주어진 은총으로 우연적이지만 본성처럼 된 ‘gratia habitualis’를 “상존은총”이라 하되, “늘 있는 은총”, “언제나 은총”을 그 대안으로 쓸 수 있으며, 이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성화은총”, “생명은총” 등을 쓴다.

연도회 - 위령회 참조

연령회 - 위령회 참조

연맹(associatio)

수도회의 ‘foederatio’는 “연합”, ‘unio’는 “통합”, ‘associatio’는 “연맹”이라 한다.

연미사 →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연설(discorso, allocutio) - 훈화,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연설문 → 연설

연합(foederatio) - 연맹 참조

열교(裂敎) → 이교(離敎)

"schisma"는 어원으로 보면 “열교(裂敎)”이지만, 그리스도교 일치 운동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아 “이교(離敎)”라 하고, 역사적 사건은 “분열”, “분규”라는 표현을 쓴다.

염경기도 → 소리기도

영대(stola)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영명 축일

"본명"은 가장 정확한 표현인 “세례명”이라고 하되, “영명 축일” 등의 용어는 함께 사용한다. “본명”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영성 생활(vita spiritualis)

"vita spiritualis"는 “영성 생활”이라 한다.

영성 수련(exercitium spiritualis : 교리서, 1438항)

예수회에서는 “영신 수련”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신학교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말로 “영성 수련”이라 한다.

영성 지도자(magister spiritus) - 장상 참조

영신 생활 → 영성 생활

영신 수련 → 영성 수련

영원법(lex aeterna : 교리서, 1951항)

"영원한 법"이 아니라 "영원법"이라 한다.

영원한 법 → 영원법

영적 독서(lectio divina)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기도가 되게 하는" "lectio divina"는 폭넓은 의미에서 지금까지 써 오던 대로 "영적 독서(lectio spiritualis)"라 한다. 다만, 성무일도 등에서 "말씀기도(officium lectionis)" 등과 반드시 구분하여야 할 때에는 "독서기도"라 한다.

영적 생활 → 영성 생활

예물기도(oratio super oblata) - 미사 통상문 26항

"oratio super oblata"는 "봉헌기도" 대신에 "예물기도"라 한다.

예비기 → 세례 준비기(catechumenatus)

예비신랑 - 신랑 참조

예비신부 - 신부 참조

예비신자

"예비자"라는 말은 모든 일에서 준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신자가 되려고 입교 준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정확한 용어인 "예비신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예비신자 성유(oleum catechumenorum) - 성유 참조

성유의 한 종류

예비신자 환영식

일반 본당에서 흔히 "입교식"이라 부르는 관행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말을 "예비신자 환영식"으로 바꾸어 쓴다.

예비자 → 예비신자

예수님 찬미

"찬미 예수"는 교우들이 전통적으로 써 오던 인사말이지만 우리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예수님 찬미"로 바꾸도록 하고, 현실적으로는 "예수님 찬미", "찬미 예수님"을 함께 쓴다.

예수 성심 성월

6월

예외적 성체 분배자 → 성체 분배자

예지(prudentia : 교리서, 1805항)

사추덕의 하나인 "prudentia"를 이미 "현명"이라 하기로 하였으나, "현명"이라는 말이 주로 형용사로 쓰이므로, "지혜"의 동의어인 "예지"라 한다.

완세 → 종말

완전한 뉘우침(contritio) - 뉘우침 참조

외국 성인명 등의 한글 표기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을 받아들이되, 이제까지 써 온 관용 표현을 잠정적으로 병용한다.

외국어 형용사의 표기

(예 : 그레고리오 성가, 그레고리안 성가)

언어마다 다르게 변화하는 형용사를 영어식으로 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어법에도 맞지 않으므로, "바티칸"처럼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용사 대신에 명사(고유 명사)로 표기한다. 예컨대, 그레고리안 성가는 "그레고리오 성가"로, 라테란 대성전은 "라테라노 대성전"으로 표기한다.

외국인(alienigena)

"originarius"에 대응하는 "alienigena"는 현지명이나 국가 이름을 붙여 표현하거나 "딴 나라(지방) 사람" 또는 "외국인"이라 한다.

외부 행사 → 경축 이동

외인, 외지인 → 외국인

요약(compendium) → 간추림

욕망 - 탐욕 참조

용기(fortitudo)

굳셈. 성령 칠은의 하나.

우의(allegoria)

일반적인 용어 사용에 따라, “allegoria”는 “우의” 또는 “우화”라 한다.

우화 - 우의 참조

원주민 → 본토인

위령 성월

11월

위령회, 연령회, 애령회, 연도회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 있지만, ‘위령회’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이를 권장한다.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에서 유래하는 용어들은 “유다인, 유다국, 유다 민족” 등으로 쓴다.

유다국 - 유다 참조

유다 민족 - 유다 참조

유다인 - 유다 참조

유대인 → 유다인

유비(analogia)

일반적인 용어 사용에 따라, “analogia”는 “유비” 또는 “유추”라 한다.

유아(infans)

세례 연령 구분 등에 필요한 말로, 7세 미만의 아이는 “유아(幼兒: infans)”, 7-13세의 아이는 “어린이(parvulus)”라 한다.

유월절 → 과월절, 넘이절

유전체(genome)

생물체가 가진 염색체의 한 조를 가리키는 ‘genome’은 “유전체(遺傳體)”라 한다.

유추 - 유비 참조

유태인 → 유대인

육화 → 강생

은둔 생활 → 독수 생활

은수자(eremita)

수도 생활의 역사와 그 변천에 따라, ‘anachoreta’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각 독수자의 삶의 형태를 따라 살아가는 수도자를 일컫는 말이므로 ‘독수자’로, ‘황야에 나간 사람’이라는 뜻의 ‘eremita’를 “은수자”로 하되,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다 같이 “은수자”로 쓴다.

음욕(luxuria)

칠죄종의 하나. ‘미2색’을 “음욕”으로 바꾼다.

응송 → 따름노래, 화답송

의견(consilium)

일깨움. 성령 칠은의 하나.

의무 기념일(memoria obligatoria) - 기념일의 등급 참조

의전 사제 수도자 → 규율 수도자

이교(異敎 : paganismus) - 이단 참조

"paganismus"는 “이교(異敎)”라 한다.

이교(離敎 : schisma)

"schisma"는 어원으로 보면 “열교(裂敎)”이지만, 그리스도교 일치 운동 등 여러 가지 상 황으로 보아 “이교(離敎)”라 하고, 역사적 사건은 “분열”, “분규”라는 표현을 쓴다.

이단(異端 : haeresis)

"haeresis"는 “이단(異端)”, “paganismus”는 “이교(異敎)”라 한다.

이동 축일(celebratio mobilis) - 경축 이동 참조

해마다 고정된 날짜가 아니라 주일 등에 지내는 축일을 가리킨다.

이민의 날

사회 복지 주일 전 주일

이방인 - 외국인 참조

이상한 언어 - 신령한 언어 참조

이중 지향(duplicatio)

"duplicatio"는 "이중 지향", "multiplicatio"는 "다수 지향"이라 한다.

인간 덕행 → 대인덕

인권 주일

대림 제2주일

인색(avaritia)

칠죄종의 하나. "간린"을 "인색"으로 바꾼다.

일곱 말씀

가상칠언(架上七言)이라는 한자어가 알아듣기 어렵다고 보아, "(십자가) 일곱 말씀" 또는 "일곱 말씀"이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 성사(septem sacramenta : 교리서, 1210항 위 제목)

칠성사를 "일곱 성사"로 고친다.

일괄 사죄(absolutio generalis)

"absolutio generalis"는 "공동 사죄"가 아니므로 "일괄 사죄"라 한다.

일깨움(consilium)

의견. 성령 칠은의 하나.

일반 사제직 → 보편 사제직

일체 → 동일 본질

임무(munus)

교회의 직무 관련 용어들을 논의하고, 일반적인 뜻으로 쓰이는 "ministerium"은 "병사"라고 하되, 성직자가 하는 "ministerium"을 구분하여 말하고자 할 때에는 "교역(따라서 minister는 교역자, clericus는 성직자)"이라 하고, "officium"은 "직무", "minus"는 "임

무'라는 말로 써 나가지만, 공식 용어로 확정하는 것은 미룬다.

임신(conceptio, praegnatio, fertilizatio, inseminatio)

교회는 인간 생명의 시작을 수정의 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conceptio”를 “임태”나 “수태”라 할 때에는 오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간 생명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로 쓸 때에는 위치 개념[胎]을 지닌 “임태”나 “수태”라는 용어 대신에 “임신”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임원 - 임직원 참조

임의 교서 → 자의 교서

임직원(officialis)

교황청 등의 “officialis”는 “임직원”, “임원”이라 한다.

입교 성사

그리스도교 신자가 될 때에 받는 세례, 견진, 성체 성사들을 “입교 성사”라 한다. 그리고 일반 본당에서 예비신자 환영식을 흔히 “입교식”이라 부르는 관행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말은 “예비신자 환영식”으로 바꾸어 쓴다.

입교식 → 예비신자 환영식

입문 성사 → 입교 성사

임태 - 임신 참조

자기 비움(exinanitio : 교리서, 2103항)

"비하, 비허"라는 말이 어려운 한자말이므로, "자기 비움"이라 한다.

자발 교서 → 자의 교서

자비송(kyrie) - 미사 통상문 3항

자선

“애금(哀矜)”은 잘못 줄여 쓰는 말로 “애금시사(哀矜施捨)”라 하여야 하지만 어려운 한자
이어서, 이를 “자선”이라 한다.

자선 주일

대림 제3주일

자연 가족계획(natural family planning)

“산아제한”이나 “가족계획(planned parenthood)”은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말이므로,
“자연 가족계획(natural family planning)”이라는 말을 쓴다.

자의 교서(motu proprio)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자치 선교구(statio missionaria)

“statio missionaria”는 공소(statio secundaria)와 구별하여 “(자치) 선교구”라 한다.

잠심 → 묵상

장궤 → 무릎절

장궤틀 → 무릎틀

장백의(alba)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장상(상급 장상)(superior, superior major)

수도회의 “superior”, “superior major”는 “장상” (또는 “상급 장상”), “moderator”는
“지도자”, “magister spiritus”는 “영성 지도자”, “professor”는 “선생”(또는 “수련장 보
조”)이라 한다.

장애인의 날

4월 20일

장엄 강복 → 장엄 축복

장엄 구마(magnus exorcismus : 교리서, 1673항)

“magnus exorcismus”를 “장엄 구마”라 한다.

장엄 미사(missa sollemnis)

축일의 등급과 관계 없이, 장엄하게 거행하는 미사를 “장엄 미사”라 하고, “대미사” 또는 “대례 미사”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장엄 축복(benedictio sollemnis) - 미사 통상문 42항

재무, 재무 담당 → 재정 담당

재물(mamon, mammon)

아람말 “mamon”은 성서에서 재물이나 재물의 힘을 가리키는, 중립적인 가치를 지니는 말로 쓰이므로, “재물”이라 한다. “물신”은 초자연적이거나 신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물건을 가리키므로, 여기서는 잘못 쓰이는 말이다.

재생 → 새로 남

재정 담당(oeconomus)

재무 담당이라는 말은 그 조어법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무를 맡은 사람을 “재정 담당”이라 하고, 해당 조직이나 기구의 직제에 따라 “담당”이라는 자리에 그 직위 등을 쓴다(예 : 재정국장).

재창조(recapitulatio : 교리서, 518항)

“recapitulatio”를 “총괄 갱신”이라 하지만, “재창조”라는 말이 더 가깝다고 보아, 교리서의 이 대목 문장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완성하는 재창조의 신비”로 다듬는다.

저승(inferi) - 미사 통상문 15항

죽음의 세계, 죽은 이들의 세계를 가리킨다.

적그리스도 → 그리스도의 적

전교

“복음화(evangelizatio)”는 폭넓은 의미로 쓰고, “선교(missio)”와 “전교”는 병행하여 사용한다. “선교”는 적극적인 복음 전파로서 그 대상이 폭넓은 느낌을 주는 말이고, “전

교 ”는 그 대상이 개인적이라는 어감을 지니고 있으나,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경우 전교 단체 등의 고유 명사가 많아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두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한다.

전교의 달

10월

전교 주일

10월 마지막 전 주일

전구(intercessio) - 미사 통상문 65항

전국(전체) 공의회(concilium plenary) - 공의회 참조

전례복(sacrum ornamentum : 교회법, 제929조)

"제의(sacrum ornamentum) ”를 “전례복 ”으로 고친다.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 참조

전례 용구 → 성당 기물

전례 용기(vasa sacris)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전례 음악(musica liturgica) - 교회 음악 참조

전례 회중(assemblea liturgica) - 회중 참조

전승(traditio) - 성전(聖傳) 참조

전야 - 성야 참조

전원 일치 호명 선출(electio per acclamationem seu inspirationem)

교황 선출 방법의 하나인 “per acclamationem seu inspirationem (quasi ex inspiratione) ”을 “전원 일치 호명 선출 ”이라 한다.

전체 공의회(concilium plenary) - 공의회 참조

전통(traditio) - 성전(聖傳) 참조

절식 → 금식재

정념(淨念) → 묵상

정배 - 신부(sponsa) 참조

정옥 - 사옥, 탐옥 참조

정화 교회(ecclesia purificans)

연옥의 교회를 “정화 교회(ecclesia purificans)”라 한다.

제구 → 성당 기물

제 나라(지방) 사람(originarius)

“본방인”, “방인”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지명이나 국가 이름을 붙여 “한국인”, “일본인” 등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특정한 지역이나 국가를 일컫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 나라(지방) 사람” 또는 “본토인”이라 한다.

제단<presbyterium(sanctuarium)>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제대(altare)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제대포(tabalea, tobalea)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제병(hostia)

“성체 축성을 전제로 한 빵(hostia)”은 “제병”이라 한다.

제사 빵(propositio : 교리서, 2581항)

“공물, 제물”이라는 말이 그 뜻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므로, “제사 빵”이라 한다.

제의(casula, planeta)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제의의(sacrum ornamentum) → 전례복

제의실(sacrarium, sacristia)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조력은총 - 현행은총 참조

“gratia actualis”는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도움이 되는 은총으로서 조력은총(도움의 은총) 등 12가지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상존은총(gratia habitualis)”에 대응하는 용어는 “현행은총”으로 쓴다.

종교덕 → 경신덕

종교 음악(musica religiosa) - 교회 음악 참조

종단 - 종파 참조

종말(eschaton)

“eschaton”을 단수로 쓰면 궁극, 마지막,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느님 자신을 가리키고, 복수로 “eschata”라 하면 종말 실재(천당, 지옥, 영원한 생명 등)와 종말 사건(재림, 심판 등)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eschaton”을 체(世) 차가 들어가는 말로 가리키면 그 의미를 축소시킬 수 있어 “종말”이라는 말을 쓴다. “제말”이라는 말은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

종말 실재(novissima)

“novissima”는 “종말 실재”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부(extrema unctio)

병자성사 예식에서 “extrema unctio”라는 용어가 없어졌으나, 과거의 예식을 설명할 때에는 “종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종파(secta religiosa)

“secta religiosa”는 “종파” 또는 “분파”라 한다.

죄를 사하다 → 죄를 용서하다(미사 통상문 3항)

→ 죄를 씻어 주다(미사 통상문 13항)

주거 불명자 → 거주 미상자

주교(episcopus) - 교계 제도의 명칭 참조

주교관(mitra)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주교 대의원 회의(synodus episcoporum) - 대의원 회의 참조

주교 십자가(crux pectoralis)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주교좌 성당(ecclesia cathedralis)

“basilica”는 “대성전”, “ecclesia cathedralis”는 “주교좌 성당”, “ecclesia”는 “성당”이라고 하되, 성서의 “성전”이라는 용어는 상징적인 의미로 쓴다.

주교 지팡이(baculus pastoralis)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주부덕 → 받은 덕, 대신덕, 향주덕

주부식 세례 → 주수 세례

주수병(urceolus)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주수 세례(infusio)

세례의 방법인 ‘infusio’는 ‘주수 세례’로, ‘immersio’는 ‘침수 세례’로 구분하여 쓴다.

주수 수건(purificatorium)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주일학교

“주일학교”가 일부 본당에서는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으므로, 그 교육 내용에 따라 “교리 학교”, “성서학교”, “신앙학교” 등으로 그 용어를 바꾸자는 의견이 있으나, 교회 안에 이미 “주일학교”라는 용어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계속 사용한다.

주장이나 학설 또는 이론의 표기

(예 : 가현설, 가현론, docetismus)

어떤 주장이나 학설 또는 이론에 이름을 붙일 때에, 정통 교리가 아니면 “-설”이라 하고, 정통 이론이면 “-론”이라 한다.

주춧돌 - 머릿돌 참조

죽으시다 → 돌아가시다

죽은 이

사목 문서 등에서 사용하는 “망인(망인대장 등)”이라는 용어를 “죽은이”로 바꾼다.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산 이를 위한 미사

“연미사”라는 말은 연옥 영혼을 위한 미사라는 뜻이고, “생미사” 또한 잘 어울리지 않는 조어이므로, 본래의 의미대로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산 이를 위한 미사”라는 말을 쓰도록 권장한다.

죽을 죄 - 대죄 참조

죽음관(visio mortis : 교리서, 1012항)

“visio”를 시각이나 생각보다는 “관(觀)”이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그리스도인의) “죽음관”으로 고친다.

준대성전(basilica minor)

"basilica minor"는 "준대성전"이라 한다.

중개자(mediator) - 미사 통상문 3항, 부록 2(ad interpellandum)

"중재자"는 본래의 뜻에 맞지 않으므로, "중개자"라 한다.

중백의(superpellicium)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중심 미사 → 교중 미사

중재(intercessio) → 기도, 전구

중재자 → 중개자

중추덕 → 사추덕

증거 제출 마감(conclusio in causa : 교회법, 제1518조 등)

"변론 준비의 종료"를 "증거 제출 마감"으로 고친다.

지덕 → 지성덕

지도자 - 장상 참조

지방인 → 본토인

지성덕(virtutes intellectuales)

"virtutes intellectuales"는 사추덕의 하나인 "예지(prudentia)"의 옛말 "지덕(智德)"과 구별할 수 있도록 "지성덕(知性德)"이라 한다.

지식(scientia)

참. 성령 칠은의 하나.

지역(개별) 공의회(concilium particulare) - 공의회 참조

지침(directorium)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지침서 → 지침

지혜(sapientia)

슬기. 성령 칠은의 하나.

직무(ministerium, munus, officium)

교회의 직무 관련 용어들을 논의하고, 일반적인 뜻으로 쓰이는 “ministerium”은 “봉사”라고 하되, 성직자가 하는 “ministerium”을 구분하여 말하고자 할 때에는 “교역(따라서 minister는 교역자, clericus는 성직자)”이라 하기로 하고, “officium”은 “직무”, “munus”는 “임무”라는 말로 써 나가지만, 공식 용어로 확정하는 것은 미룬다.

직무 사제직(sacerdotium ministeriale)

서품된 직무, 곧 성품성사에서 나오는 주요 직무인 사제직(presbyteratus)을 가리킨다.

직무 파면 처분(officii privatio : 교회법, 제1389조)

“박탈 처분”을 “직무 파면 처분”으로 고친다.

진복팔단 → 행복 선언, 참 행복

질투(invidia)

칠죄종의 하나

짧은 독서(lectio brevis)

"성경 소구"라 하던 “lectio brevis”는 “짧은 독서”라 한다.

찬미 예수 → 예수님 찬미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는 교우들이 전통적으로 써 오던 인사말이지만 우리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예수님 찬미”로 바꾸고, 현실적으로는 “예수님 찬미”, “찬미 예수님”을 함께 쓴다.

참사회 - 총회 참조

참 행복

행복 선언의 내용을 “참 행복”이라 한다.

참회성사 → 고해성사

창립법, 창설법 → 설립법

창설자 → 설립자

책임(imputabilitas : 교리서, 1860항)

"imputabilitas(인책성, 귀책성)"를 쉬운 말로 “책임”이라 한다.

책틀(legile) - 전례북, 성당 기물 명칭 참조

천주

"하느님"과 병행하여 사용한다.

천주교

"가톨릭"과 병행하여 사용한다.

천주성 - 신성 참조

첫금요일 신심

“첨례”라는 말이 “축일”로 바뀌었으나 “첫첨례 오,육,칠” 등의 용어에 “축일”이라는 말을 바로 대입할 수는 없으므로, 이 용어들을 각각 “첫목요일 신심”, “첫금요일 신심”, “첫토요일 신심”이라 한다.

첫목요일 신심 - 첫금요일 신심 참조

첫사제(protosacerdos)

"protosacerdos"는 “첫사제”라 한다.

첫첨례오 → 첫목요일 신심

첫첨례육 → 첫금요일 신심

첫첨례칠 → 첫토요일 신심

첫토요일 신심 - 첫금요일 신심 참조

청소년 주일

5월 마지막 주일, 세계 젊은이의 날

청죄 사제 → 고해 사제

체현 - 강생 참조

초령 기도 - 성령 청원 기도 참조

초심자 → 새 신자

총괄 갱신 - 재창조 참조

총대리(vicarius generalis)

교회법 규범에 따라 직권을 가지고 교구 전체의 통치에서 교구장 주교를 보좌하는 자

총대주교(patriarcha)

“patriarcha”는 “총대주교”라 하고, 동방 교회의 “patriarcha oecumenicus”는 oecumenicus를 따로 지칭하지 않고, 우리는 그 존칭 “Lord Pope”, “His Holiness”를 그냥 “전하”라 한다.

총원장(supremus moderator : 교회법, 제743조)

“총장”을 “총원장”으로 고친다.

총장 → 총원장

총회(capitulum generale)

수도회의 “capitulum generale”는 “총회”; “capitulum”은 “회의(또는 참사회)”, “consilium”은 “평의회”, “참사회”라 한다.

최후 심판(ultimum iudicium)

“사(私)”와 “공(公)”이라는 표현을 잘못 알아들을 수 있으므로, “ultimum iudicium”은

“공심판”이라는 말 대신에 “최후 심판”이라 한다.

추기경(cardinalis) - 교계 제도의 명칭 참조

추기경 회의(consistorium)

현재의 추기경단은 추기원 시대의 상황과 다르므로, 교회 안팎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추기경 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역사적인 기술에서는 “추기원 회의”를 쓴다.

추기원 - 추기경 회의 참조

추기원 회의 - 추기경 회의 참조

축복(benedictio)

“축복”이라는 말을 “하느님께 복을 비는 것(祝福)”과 “하느님께서 내려 주시는 복(降福)”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함께 사용해 왔으나, “축복”과 “강복”을 구분하여, “하느님께 복을 비는 것”만을 “축복”이라 하고, “하느님께서 내려 주시는 복”을 “강복”이라 한다. 따라서 사제는 “축복”을 하고, 하느님께서 “강복하신다(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여야 한다. 사물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축복”한다고 한다.

축성 - 봉헌 참조

축성 생활 → 봉헌 생활

축성 성유(chrisma)

“크리스마(미론)”가 곧 기름이고 성유이므로, “크리스마 성유”라는 말은 잘못된 용어일 뿐 아니라 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말이며, 축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성유가 곧 크리스마이므로, “크리스마 성유”를 “축성 성유”로 바꾸어 쓴다. 따라서, 성유의 종류는 “축성 성유”, “병자 성유”, “예비신자 성유”이다. “세례 성유”라는 말은 “축성 성유”와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 쓰지 않는다.

축일 이동(translatio festi)

축일이 겹칠 때에 한 축일을 다른 날로 옮겨 지내는 것을 가리킨다.

출산(procreatio : 교리서, 2201항)

“생산”이라는 말이 가장 알맞은 말이지만, 요즈음에는 “제품 생산”과 같이 전혀 다른 경우에 널리 쓰이고 있어, 일반 사회에서 써 오던 대로 “출산”이라 한다.

치명, 치명자 → 순교, 순교자

칙서(bulla)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칙서(chirografum) → 친서

친서(chirografum)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칠성사 → 일곱 성사

칠죄종(peccata capitalia)

다른 죄와 악습을 유발하는 일곱 가지 죄종은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이다. “교오”는 “교만”으로, “간린”은 “인색”으로, “미색”은 “음욕”으로, “탐도”는 “탐욕”으로, “해태”는 “나태”로 바꾸고, “분노”와 “질투”는 그대로 쓴다.

침례 → 침수 세례

침수 세례(immersio)

세례의 한 방법인 “immersio”은 “침수 세례”로, “infusio”은 “주수 세례”로 구분하여 쓴다.

카파<cappa (magna), pluviale>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크리스마 - 축성 성유 참조

크리스마 성유 → 축성 성유

탁덕(presbyter) - 신부, 교계 제도의 명칭 참조

탈혼 - 몰아 참조

탐도 → 탐욕

탐욕(gula)

칠죄종의 하나. ‘탐도’를 ‘탐욕’으로 바꾼다. ‘탐욕’이라는 말을 일반적인 의미로 쓸 때에는 ‘사욕(邪慾 : concupiscentia)’이라는 말도 같이 쓴다.

통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통지문 → 공지

통찰(intellectus)

깨달음. 성령 칠은의 하나.

통합(unio)

수도회의 ‘foederatio’는 ‘연합’, ‘unio’는 ‘통합’, ‘associatio’는 ‘연맹’이라 한다.

통회 - 뉘우침 참조

투쟁 교회(ecclesia militans)

지상의 교회를 “투쟁 교회(ecclesia militans)” 또는 “순례 교회(ecclesia peregrinans)”라 한다.

특별 예식 미사(missa ritualis)

“missa ritualis”를 “성사 미사”라고 해 왔으나, 미사 자체가 성사여서 이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보아, “특별 예식 미사”라는 말을 사용한다.

특별 주일

기존대로 “—주일”을 그대로 사용한다.

사회 복지 주일(1월 마지막 주일)

성소 주일(부활 제4주일)

홍보 주일(주님 승천 대축일)

청소년 주일(5월 마지막 주일)

교황 주일(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가까운 주일)

농민 주일(7월 셋째 주일)
군인 주일(10월 첫 주일)
전교 주일(10월 마지막 전 주일)
평신도 주일(연중 마지막 전 주일)
인권 주일(대림 제2주일)
자선 주일(대림 제3주일)

그러나 주일이 아니거나 특정일과 관련된 날은 그대로 “—날”이라 한다.

세계 평화의 날(1월 1일)
이민의 날(사회 복지 주일 전 주일)
봉헌 생활의 날(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
세계 병자의 날(2월 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장애인의 날(4월 20일)
생명의 날(5월 마지막 주일)
사제 성화의 날(예수 성심 대축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6월 25일에 가까운 주일)

특전 미사

주일과 의무 축일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드리는 주일과 의무 축일 미사를 “특전 미사”라 한다(교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

파견(ritus dimmisionis) - 미사 통상문 143항

파견 예식 → 파견

파스카(Pascha) - 과월절, 넘이절 참조

팔리움(pallium)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8부 축일 → 팔일축제

팔일축제(octava)

부활, 성탄처럼 대축일 전날부터 지내는 한 주간의 축제

편지(—서 : epistula)

신약성서 서간의 개별 명칭은 서간, 편지, 서한(—서)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평수사 - 수도자 참조

평신도

‘평신도’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교회법전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교계 제도 안에서 신분의 구별과 개념상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때에, ‘평신도’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한다. “신자” 또는 “신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이 성직자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 신자를 포괄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평신도 주일

연중 마지막 전 주일

평의회 - 총회 참조

폐회식 → 마침 예식

포교(propaganda fides, propagatio fidei)

‘포교’라는 용어 자체는 폐기시키지 않고 그대로 둔다.

(주교회의는 역사적 사조의 변화에 따라 그 사용이 부적합하게 보여지는 용어라 하더라도, 용어 자체는 폐기시키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포교 사업의 수호자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 포교 선교의 수호자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포교 사업의 수호자 예수 아기의 성녀 테레사 동정

→ 포교 선교의 수호자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 동정 학자

품계(ordo) - 성품성사 참조

성품의 각 품격을 가리키는 말

프로테스탄트 - 개신교 참조

피고(reus : 교회법, 제1655조 2항)

“피고소인”을 “피고”로 고친다.

피승천 → 성모 승천

피임 - 산아조절 참조

피정(recollectio) - 묵상 참조

필레올루스(pileolus) - 전례복, 성당 기물 명칭 참조

하느님

“천주”와 병행하여 사용한다.

하느님 법의 하나인 자연법(lex divina et naturalis : 교리서, 1955항)

‘lex divina’를 ‘하느님 법’이라 하고, ‘lex divina et naturalis’는 ‘하느님 법의 하나인 자연법’으로 고친다.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homo est dei “capax”: 교리서, 27항 위 제목)

여러 가지 뜻을 다 담을 수 있도록, 적어도 교리서에서는 “capax”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옮긴다.

하등 통회(attritio) → 불완전한 뉘우침

학사 → 신학생

“신학생”을 “학사”라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냥 “신학생”이라고 한다.

한국 103위 성인명

한국 이름 다음에 외국 세례명을 표기한다. 예컨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성 한재권 요셉 순교자”와 같은 순서로 표기하여야 한다. 단, 한원서 성인의 이름은 한재권으로 바로잡는다. 또한 한국 순교자 이름에 붙여진 “소사”, “아기”, “큰아기”, “선달”, “쌍원”, “서방” 등의 용어는 순교자 신심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학문적으로 신분을 밝혀 구분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대로 쓰되, 기도문 등의 공식 명칭에서는 성과 세례명만을 표기한다.

한 본체(consubstantialitas)

“consubstantialitas”는 “한 본체” 또는 “동일 본질”이라 한다.

한처음부터(ab initio : 교리서, 1079항)

“태초부터”를 공동 번역 성서에 따라 순 우리말인 “한처음부터”라고 한다.

합동 미사 → 공동 집전 미사

합동 지향 미사(missa applicata iuxta collectivam intentionem)

설이나 추석 때에 공통 지향의 미사 예물을 받고 거행하는 미사는 “합동 지향 미사”라

한다.

해방절 - 과월절, 넘이절 참조

해태 → 나태

행방불명자 → 거주 미상자

행복 선언(beatitudes)

“진복팔단(beatitudes)”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므로, 이를 “행복 선언”이라 하고, 그 내용은 “참 행복”이라 한다.

행불자 → 거주 미상자

행위(acta : 교회법, 제1524조 1항)

“기록 문서”를 “행위”로 고친다.

향(incensum) - 전례북, 성당 기물 명칭 참조

향그릇(navicula, naviculum) - 전례북, 성당 기물 명칭 참조

향로(tribulum) - 전례북, 성당 기물 명칭 참조

향주덕(virtus theologica)

“믿음, 바람, 사랑” 또는 “신덕, 망덕, 애덕”을 가리키는 “대신덕”, “향주덕”이라는 두 용어는 함께 쓰고, “주부덕”은 너무 어려운 말이고 “신학 삼덕”은 틀린 용어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헌금대, 헌금함, 헌금통, —바구니, —주머니 등(collecta)

전례북, 성당 기물 명칭 참조

헌장(constitutio)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현명 → 예지

현양 제대 → 수난 감실

현행은총(gratia actualis)

“gratia actualis”는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도움이 되는 은총으로서 조력은총(도움의 은총) 등 12가지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상존은총(gratia habitualis)”에 대응하는 용어는

“현행은총 ”으로 쓴다.

혈세(baptismus sanguinis)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세례의 효과를 가져온다.

협동 주교 → 부교구장 주교

협력(concursus : 교회법, 제1524조 2항)

“회합 ”을 “협력 ”으로 고친다.

협력자 - 수도자 참조

호칭기도(litaniae)

이 용어가 지니고 있는 뜻을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매우 적합한 용어를 찾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써 오던 대로 계속 “호칭기도 ”라 한다.

혼인(nuptiae : 교회법, 제1146조)

“혼례 ”를 “혼인 ”으로 고친다.

혼인 동의 → 혼인 합의

혼인성사(sacramentum matrimonii)

일곱 성사의 하나

혼인 합의

두 당사자의 혼인 의사가 합치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는 ‘합의 ’라는 말이 더 정확하므로, 혼인 동의를 새 교회법전의 번역에 따라 “혼인 합의 ”로 바꾸어 쓴다.

홍보 주일

주님 승천 대축일

화답송(psalmus responsorius) - 미사 통상문 8항

화세(votum baptismi)

세례 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죽는 것으로 세례의 효과를 가져온다.

화해(reconciliatio)

“죄를 기워 갚는다 ”는 뜻으로 십자가의 구속 희생을 가리키는 이 용어들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사용한다.

expiatio, propitiatio 속죄(성전 개념)

satisfactio, - substitutiva 보상 또는 보속, 대리 보상 또는 대속(법정 개념)

redemptio 대속, 대속물, 구속, 속량(시장 개념)

reconciliatio 화해(가정 개념)

확정(confirmare : 교회법, 제1682조 2항)

‘확증’을 ‘확정’으로 고친다.

황홀경 - 몰아 참조

회람(litterae circularis)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회람 서한 → 회람

회신(responsum)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회의(capitulum : 교회법, 제631조 2항)

‘의회’를 ‘회의’로 고친다.

회의(synodus) - 대의원 회의 참조

회중(populus congregatus)

전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구원하는 백성의 표징으로서 ‘populus congregatus’를 ‘회중’이라 한다.

회중 미사 →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

회칙(encyclica)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후렴(antiphona)

시편 앞뒤에 따르는 노래, 행렬을 따르며 부르는 노래인 ‘antiphona’는 ‘따름노래’라 한다. 다만,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경우(화답송, 성무일도의 시편기도 등)에는 ‘후렴’이라는 말을 그대로 쓴다.

후속 기도(embolismus) - 미사 통상문 126항

‘embolismus’는 ‘후속 기도’라 한다.

훈령(instructio) -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훈화(allocutio, discorso) - 연설, 교황/교황청 문헌 명칭 참조

희년(jubilaem)

“희년”과 “성년”은 성서적인 의미와 교회 전통을 따라 함께 사용한다.

희망 - 바람 참조

희망의 덕 - 바람, 망덕 참조

흰 옷 벗는 주일 - 사백주일 참조